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수기

# 목 차

## I. 일반전형 입학수기

|                                      |    |
|--------------------------------------|----|
| 1.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 3  |
| 2. 세상을 바꾸는 법정을 꿈꾸며                   | 5  |
| 3. 집중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 9  |
| 4. 법전원 입학 준비를 위한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         | 11 |
| 5. 공인노무사에서 법전원 학생으로                  | 14 |
| 6. 확고한 목표 설정과 자신감                    | 17 |
| 7. 해외대학에서 로스쿨까지                      | 20 |
| 8. 항목별로 목표를 세워 하나씩 하나씩               | 23 |
| 9. 스터디를 통한 입학 준비                     | 26 |
| 10. 진인사대천명, 노력에 부끄럼이 없기를             | 29 |
| 11. 로스쿨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 31 |
| 12. 기적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 34 |
| 13. 일희일비 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 41 |
| 14. 자신에게 맞는 준비 방법을 찾아야               | 44 |
| 15. 열려있는 법조인의 꿈을 향해                  | 51 |
| 16. 윤리학에서 법학으로                       | 53 |
| 17. 로스쿨 합격수기                         | 56 |
| 18. 여유 있게, 그러나 끝까지                   | 62 |
| 19. 인내의 시간을 견뎌 더 큰 성취로               | 65 |
| 20. 법조인 지망 동기, 합격소감                  | 68 |
| 21. 자신만의 강점으로                        | 71 |
| 22. 자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관건                | 74 |
| 23. 환경을 생각하는 법학도의 길                  | 76 |

|                             |     |
|-----------------------------|-----|
| 24. 로스쿨 입시, 공부하는 습관의 시작     | 78  |
| 25.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83  |
| 26. 본인의 장단점을 살리는 계획을 세워야    | 87  |
| 27. 계속해서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룬다      | 90  |
| 28.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 94  |
| 29. 막연한 꿈을 좇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97  |
| 30. 노력이 반                   | 101 |
| 31. 지난 1년을 기억하며             | 105 |
| 32.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 109 |

## II. 특별전형 입학수기

|                                    |     |
|------------------------------------|-----|
| 1. 특별전형 입학수기                       | 113 |
| 2. 모두가 꿈을 이룰 수는 있지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 118 |

## III. 법전원 생활수기

|                               |     |
|-------------------------------|-----|
| 1. 어느 파일럿의 저공비행               | 124 |
| 2. 로스쿨에서                      | 127 |
| 3. 로스쿨에서의 잊지 못할 3년            | 130 |
| 4. 법전원에서의 1년                  | 134 |
| 5. 로스쿨에서 살아남는 법               | 137 |
| 6. 건문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로스쿨 | 140 |

## IV.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                      |     |
|----------------------|-----|
| 1.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 144 |
| 2.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 148 |

##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최정훈

### 1.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여행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년 대표를 맡아서 여러 동기들과 얼굴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1학년 1학기 때는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로펌에서 평일에 실무 경험을 해 보고자 1달 가량 일했습니다. 그제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향후 법조인으로써 살아가게 되어 밑바탕이 되는 법적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기간은 오직 로스쿨 3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는, 1학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찰 및 로클럭에 관심이 있던 저로서는 2학년 때까지 변호사 시험 준비가 다 되어야 3학년 때 마음 편히 검찰 및 로클럭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각 과목별로 단권화 작업을 마치고자 하였습니다. 1학년 2학기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방학 때는 예습을 하고, 학기 중에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을 하였고, 중간·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단권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법문서 작성 수업을 들으면서 익힌 민사기록에 대한感を 바탕으로 3학년 1학기 때 민사재판실무 시간에 민사기록은 정리하기로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공법 및 형사기록 수업을 들으면서 기록에 대한感を 잡도록 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민사재판실무 및 요건사실론 수업을 들으면서 민사기록을 정리하였고,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을 정리하였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의 로클럭 준비를 하느라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로클럭 시험이 끝난 후부터는 로클럭 준비하느라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공법과 상법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선택과목도 병행하였습니다.

### 2.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7일전 즈음부터 충남대학교 기숙사에서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환경이 바뀐 탓에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였던지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감기약을 거의 매일 복용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변호사시험 중간 휴식일인 1월 7일(수요일)에는 인근 병원에서 수액을 맞기까지 하였습니다. 시험 전 날에 가급적이면 시험 보는 과목을 전체 1회독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록형 시험의 경우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험 2-3일 전에 기출 기록을 풀어보면서 기록에 대한感を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다음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각 과목당 몇 개의 쟁점을 추려서 가져간 후 쉬는 시간에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시험시작 35분 전에 소지품을 제출해야 되고, 10분 전에 입실해야 되는데, 입실 마지막 시간까지 복도에서 추려간 쟁점 등을 읽었습니다. 시험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마나 초콜릿을 준비하였고, 시험 중간 중간에 이를 섭취하면서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 3. 공부에 임하는 자세

변호사 시험 상위 5% 내로 합격자자는 각오로 공부를 하였고, 강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사례를 풀어본 후 답안과 비교해보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기본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스터디도 참여하였었는데 마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사례를 풀어주는 것처럼 팀원들이 각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오전 6시경에 일어나서, 1시간가량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은 후 오전 8시 30분부터는 공부하려고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답소를 나누는 시간 등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저녁 9시쯤에는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 결과 로스쿨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공부하였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는 일요일 저녁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 4. 맺음말

나 자신과 타협하고 싶은 시점에 타협하지 않고 이겨나갈 때 변호사 시험 합격의 고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세상을 바꾼 법정(마이클 리프, 미첼 콜드웰 저, 금태섭 역)’은 세상만이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책입니다. 본 책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들의 법정 공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원래 저는 법조인에 대한 막연히 부정적 인식을 가졌었습니다. 그저 갈등을 이용(악용)해서 돈과 지위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책에서 묘사된 법조인들은 치밀한 논리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내의 윤리적, 정치적 분쟁을 차분히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전문지식과 논리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조인, 드디어 진로에 대한 방향에서 벗어나 이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이거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제 목표는 보다 확고해졌습니다.

학부 1학년 때부터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정성 요소에 대해선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전공 선택에 있어 법경제 트랙이 마련된 학과에 진학했고, 1학년 때는 로스쿨 선배들과 함께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법 분야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었고 로스쿨 선배들로부터 법학 공부와 법조인의 진로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자단 활동 및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고 토론 대회도 다수 참가했습니다(수상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3학년 때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홍콩에서 교환학생을 했고 이때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꾸준히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新HSK5급).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는 타과에 마련된 법학 전공과목들과 법학 교양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4학년 때는 리트 등 로스쿨 입시에 전념했습니다.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로스쿨에 합격한 동기들을 보면 다들 이 정도는 기본이고 전문 자격이나 사시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는 크게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로 나뉩니다. 정량 요소는 학점, 토익, 리트(줄여서 학토티) 등 점수로 정량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이고 정성요소는 자소서에서 반영되는 그밖의 경험이나 활동 등입니다. 우선 정량 요소인 학점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점은 로스쿨입시에서 꽤 중요하고 비가역적인 변수입니다. 법학이란 꾸준한 성실함을 요구하는 학문이기에(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로스쿨이나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학점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학점은 한 번 나오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 명

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동아리 운영 등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활동들을 줄이고 전공 공부나 법학 공부를 많이 할 것 하는 후회를 했었습니다.

토익은, 매달 칠 수 있으니 평소에 자주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적은 이미 상향평준화가 되어있어서 합격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일정 성적을 받고 나서는 다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진 않았고 토익 시험만 몇 번 응시하여 원하는 점수가 나온 뒤로는 리트 등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리트는 로스쿨 입시의 합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입시가 있는 해에는 리트와 면접, 자소서에만 투자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리트는 노력 대비 결과가 좋은 시험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가 있고 노력과 운(그리고 실전에서 풀지 않는 강철 멘탈)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점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스터디와 강의를 통해 리트 준비를 했습니다. 추리논증은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들으며 기본 논리학 지식이나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 유형을 탄탄히 익혔고(기본적인 논리학이랑 유형만 파악해도 점수가 확 오릅니다) 그 후로는 문제 풀이 스터디를 통해 서로 풀이법을 비교하며 더 효율적인 풀이를 계속 탐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유명 강사의 현장을 들으며 파이널 모의고사를 직접 가서 풀고 해설을 들었습니다. 언어이해는 기본 강의만 듣고 그 후로는 문제 풀이를 통해 시간 단축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추리논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언어이해는 자신이 있어서 추리논증 대비에 시간을 훨씬 많이 투자하고 언어이해는 남는 시간에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전에선 평소에 늘 잘 치던 언어이해는 망했고 추리논증은 평소보다 잘 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리트, M/D 기출, 수능 언어 기출, 피셋 기출이고 사실 모의고사나 강사가 만든 문제들은 오히려 방해됩니다.

면접은 스터디와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로스쿨 면접 말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리트를 치고 성적이 나오면 멘탈이 많이 무너지겠지만 아직 면접과 자기소개서라는 더 큰 배점의 시험들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리트 점수를 보고 평소보다 너무 못 나와서 멘붕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스터디를 조직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위한 면접은 특수한 말하기라서 결국 이에 가장 익숙해진 자가 가장 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느껴지는 지원자 간 내공의 격차는 그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따로 조직해서(참고로 면접 스터디를 준비할 때는 최대한 전공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법대생은 반드시 포함시키길 바람) 면접을 준비했고 모 강사의 250제(거의 수학의

정석 수준으로 많이 씁니다)에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면접자와 면접관을 역할을 바꿔 가며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스피치 과목 교수들의 피드백과 로스쿨 교수들의 조언을 몇 번 받기도 했습니다. 250제에 나온 주제를 거의 다 다루고 나서는 각 스터디원이 지원하는 학교의 면접 기출 문제를 위주로 강의실을 빌려서 실천처럼 꾸미고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막상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A4용지 두 장 분량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대답을 구상하는데 10분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면접을 처음 봐서 그런지 많이 긴장했고 말이 빨라지는 등 평소의 안 좋은 버릇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결국 실전과 같은 연습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터디가 진행되다보니 서로 친해져서 '긴장'이란 요소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로스쿨 면접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어설피게 아는 법학 지식이나 법리, 법학 용어 사용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파하게 아는 법학 지식을 면접장에서 언급했다가는 최고 전문가들인 교수님들과 변호사의 피드백과 비판을 대차게 받을 것입니다(다른 학교 면접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국 거건 불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소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로스쿨 준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트가 험준한 벽으로 보이겠지만 해야 할 것이 정해진 리트는 마음고생은 덜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삶을 녹이는 과정이라 왕도가 없고 채점 기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전이 꽤 중요합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며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하는지 감을 잡고(합격 자소서는 선배나 지인, 스터디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합격자들에게 자소서 초안 첨삭 가능한 많이 받기), 각 학교 별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입시 설명회에서 공유되는 정보와 입학 사정 담당 교수들의 의견 파악이 중요). 평소에 안면이 있는 로스쿨 교수나 로스쿨 선배가 있으시다면 꼭 찾아뵙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내면과의 싸움과 무한정한 퇴고가 계속됩니다. 일단 자기의 삶 전체를 관망해보며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었고, 어떠한 점에서 법조인에 부합하며 특히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 등등을 증명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설령 자신이 그러한 경험과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① 입학 사정 교수님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증명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쭉 정리하고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도 본격적으로 글 쓰는 것 못지않게 많은 시간이 듭니다(저는 대회에서 받은 상

장 중 몇 개를 분실해서 대회 주최자 측으로부터 상장을 재수령 받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람에 학교 수업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이 많은 것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백번 자기가 금융에 관심 있다고 말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자잘한 상을 언급하는 것보다 CFA를 뒀고 관련 분야 인턴을 했다 이런 게 훨씬 실효적인 한방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귀찮은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저는 자기소개서를 몇 십번 고쳐 쓰면서 내가 왜 하필 그런 법조인이 되어야 하나, 내가 이에 부합하는 것이 맞나, 애시당초 학교가 왜 나를 뽑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증명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마주하면 할수록 그 동기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딱히 어필할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로스쿨 진로를 늦게 결정하신 분들은 더할 것입니다). 이런 한 달 여 간의 과정을 잘 견뎌야 겨우 내밀만한 자기소개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다시 글쓰기 전문가분들(학교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클리닉 등 추천)께 문장 첨삭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때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아직도 제가 쓴 자기소개서는 다시 보지도 않습니다. 길게 썼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소개서 작성의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니까 자신의 삶의 포트폴리오를 로스쿨 준비 시작부터 미리 준비해놓고 자기소개서 쓸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반영 비율은 달라도 자기소개서에서 꽤 많은 점수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 자기소개서를 절대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끝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힘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출신 학교나 전공이 중요한지, 내가 한 활동들에 의미가 있는지, 면접은 잘 봤는지, 내 자기소개서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이 불안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스터디를 하는 것도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저는 이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외부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차근차근 준비하다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집중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하민지

합격의 기쁨을 접한 것이 엊그제 같지만, 이미 봄이 완연한 교정에서 법학이라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도 어느덧 1년 전입니다. 비(非)법학도로서 새로운 길에 나아가고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짧은 기간 동안 순조롭게 마친 것에 안도하며 수험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LEET공부를 시작한 것은 1월 말이었습니다. 계절학기 종강 이후로 매일 친구와 함께 격일로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의 인터넷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실전문제를 풀기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지는 2015년 1학기는 제 학부시절 중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LEET시험을 앞두고 많은 친구들은 수업을 적게 들었지만, 저는 입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학점을 조금이라도 올리고자 수강할 수 있는 최대치인 22학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몸담았던 연합동아리에서 회장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생활에 아쉬움이 없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학기 중 LEET준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초조함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대학생활을 풍부하게 해 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바빴던 1학기가 지나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LEET공부를 할 수 없었던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여름방학에는 온전히 LEET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 매일 아침에 스터디원들과 모여 언어이해, 추리논증 시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점심식사 후 질의응답을 통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PSAT문제를 LEET시험과 유사하게 35문항씩 나눠 시간을 맞춰 풀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방학동안 독학을 하거나 중간에 스터디를 나간 친구들은 대부분 혼자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고, 시험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제 스스로에게만 의지했다면 나태한 수험생활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학교 부근에서 생활하며 방학동안 공부에 전념했고, 그 결과 표준점수 1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LEET시험에서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의 경우, 항상 집중력이 모자랐던 편이라 시험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집중력을 발휘하자고 다짐했고, 덕분에 언어이해 영역에서 순조롭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처럼 집중하는 연습이 부족했기에 종료 20분 전, 갑자기 마음이 흐트러져 지문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채점 후 집중력이 흐트러진 그 부분에서 모두 오답을 냈음을 알았습니다. 무너진 집중력은 추리논증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추리논증에서는 언어이해 영역만큼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LEET시험은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 필연적으로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어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문제를 소홀히 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험기간 동안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과 함께 시험장에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집중력과 긴장감을 제어하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9월이 오기까지 약 2주간의 휴식을 취한 후, 공인영어점수 성적을 확보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사실 LEET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학점관리 및 수험공부가 급하기 때문에, 공인영어점수에만 시간을 쏟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9월에 마지막으로 영어점수를 올리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학기 중 틈틈이 공인영어시험을 꾸준히 봤지만, 9월 초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투자해 응시한 TEPS시험에서 듣기, 독해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해 974점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입시자료를 모으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로스쿨 입시에서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로스쿨 입시 커뮤니티, 각 학교의 전문대학원 입시 게시판에서 합격, 불합격 표본을 수합해 대략적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각 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입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합동입시설명회입니다. 저 역시 어느 학교에 지원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경희대학교 입학생상담을 받았는데, 교수님의 친절함 상단에 깊게 감명을 받아 꼭 지원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며 상담을 마쳤습니다. 저는 합동입시설명회가 여러 학교의 부스에 직접 방문해 희망하는 학교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1년 동안 짧은 수험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며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음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는 글로벌 시대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해력과 논리력, 성실성과 기초 소양을 배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외로운 투쟁으로서의 법학 공부가 아닌,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예비 법학도를 선발하는 과정을 겪고 나니, 제 잠재력을 발견하고 선발해주신 것으로 믿으며 실력 있는 법조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자신감을 다지게 됩니다.

## 법전문 입학 준비를 위한 소중한 값진 시간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홍민수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때, 친구와 함께 「공공의 적 2」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부패한 사회 권력에 맞서는 검사가 주인공이었는데, 청렴하게 살면서 정의 구현의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제 진로는 그 때부터 밀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법학을 공부하다보니 법학이 제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군 제대 후, 집에서 쉬다가 우연히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이 형성하는 거대한 국가 권력에 형사, 검사, 기자가 대항하는,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몰입했던 나머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화까지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며 이 건 드라마의 내용이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 번 꿈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한 정량점수는 학점, 영어, LEET의 3가지입니다. 제대 후 복학했던 2012년부터 가장 급한 학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의 시간이 길었기에 정상적인 학점이 아니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학점을 잘 주시는 과목보다는, 공부하기 힘들더라도 제가 재미있어 할 만한 과목을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역사, 체육, 음악, 게임, 심리, 정치 등 다양한 관심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아침에는 송도, 오후에는 신촌에서 수업을 듣는 강행군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초수강과 재수강을 골고루 하며 2014년까지는 학점을 복구하는 데 주력했고, 4.3만점에 2.7에서 시작해 3.6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익을 준비했습니다. 친한 선배에게 강사를 강력하게 추천받아 신촌의 한 학원에서 겨울방학이었던 14년 2달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10년 연속 토익 만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강사분이셨는데, 방학의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 그 분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했습니다. 유능한 강사님의 강의와 지도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토익 시험에서 900점을 받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945점을 받아 최상위권 점수는 아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영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강력한 추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친한 선배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강사님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준비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법학적성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기에, 제게 LEET는 공부 양에 비례해서 점수가 오르는 시험도 아니었고 기출 문제가 적어 출제 경향이나 유형을 파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결국 LEET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로스쿨 도전은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재수였기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불합격의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8차까지 발표된 추가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는 것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학점과 토익 점수는 고정시켜 놓은 채, LEET에 모든 것을 걸자고 다짐했습니다.

작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동분서주했지만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많이 듣고 참고했지만 제가 직접 긴 시간을 들여 오답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전반기를 '가랑비에 옷 젖는 해'라고 이름 붙인 후 이번에는 혼자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언어는 독서량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독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삼국지」와 「로마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았을 때 답이 기억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6월까지는 정말 책만 읽었습니다. 추리논증 역시 강사 추천도서를 읽으며 시작했습니다. 「논리게임 바이블」, 「피클과 함께하는 즐거운 논리」, 「변호사 논증법」 등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식히려 게임을 하더라도 「포탈2」와 같이 우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온 정신을 LEET에 쏟았습니다. 매일 사설을 읽었고 문단별로 번호를 매겼으며 어떤 글이라도 '또는'에 V표를, '~이고'에 &를, '~한다면'에 →를 표시하는 등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7월부터 다시 LEET와 MEET, PSAT 기출문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든 추리든 매번 처음 풀었을 때보다 더 많이 틀렸지만 아직 옷이 다 젖지 않았다는 생각에 천천히 오답을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고, 나는 왜 이 답을 선택했으며, 정답의 근거는 지문의 어디 부분에 있는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시험 당일에 주의해야 할 점을 과목별로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반복하다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습관'과 유형별 약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여전히 10개 넘게 틀렸지만, 지문이 재미있다고 느껴진다는 점에 만족했고 모의고사는 실제 문제보다 한 번 더 꼬아서 내기 때문에 틀린 개수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

습니다. 시험 2주 전부터는 선배의 조언을 받아 생활 습관을 시험 일정에 맞춰 6시에 기상해 8시 반에 책상에 앉을 수 있게 훈련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평소 공부하던 복장 그대로 편하게 갔습니다. 시험 전에 초콜릿을 먹으며 노트에 적었던 주의사항을 계속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언어는 맑게 깨어있는 상태로 전 지문을 완독했고 모든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끝냈을 때 정확히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14번까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상당히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험 후에도 채점을 하지 않고 발표를 기다렸는데, 언어는 백분위 97, 우리는 72가 나오고 원래 목표치였던 120점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합심해서 즐겁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게 토익 강의를 추천해 준 그 형이 그런 분위기라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라고 말해서 목표를 경희대 로스쿨로 잡았습니다. 처음 로스쿨을 준비할 때는 가지 않 았던 공동 입학 설명회에도 참석해 교수님들께 면접 시 묻는 질문, 자기소개서에 중점 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 등 궁금한 것을 모두 여쭙보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기소 개서는 2주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과 선배에게 들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짧은 분량 속에 핵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후 주변의 여 러 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교육회사 CEO이신 선배,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후배, 법학과 교수님, 여자 친구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법학과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조직해서 연습했습니다. 각 자 지원하는 학교의 면접 방식에 따라 시사 문제를 케이스로 만들어 진행했는데, 사회 적 이슈 그 자체를 익히려고 하기 보다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면접 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받았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던 건 스터디에서 연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안고 법학과에 들어와 방향의 시간을 보내고 입대도 하는 등 멀리 돌아서 오기는 했지만, 저는 다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힘들었지만 추억도 많았고, 제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돌아켜보면, 처음 준비했던 해 에 불합격한 것이 오히려 제게 기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합격했다면 제가 겪었던 소중한 값진 경험들을 놓쳤을 것이기에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넘어야 할 다른 산이 눈앞에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전보다 더욱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제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서 도무지 업무가 나지 않았습니 다. 입학수기라는 글은 입학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일진데, 저는 뽀넬 만큼 드라마틱한 수험생활을 겪지도, 알려드릴만한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셨던, 혹은 그러한 길을 계획하고 있으시는 분들께 이 글이 조그만 참고자료라도 될 수 있다 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권유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 I. 대학생활과 진로탐색

08년에 모교에 입학했습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들어온 법과대학이었지만, 처음 접한 법 학은 너무나 어렵고 따분했습니다. 자연히 학업과 멀어졌습니다. 반면 미래에 대한 막연 함은 계속 커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동아리, 기자단, 공모전, 서포터즈, 여행, 아르바이트 등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해보았지만 순간의 즐거움만 얻을 수 있었을 뿐,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가을학기에 우연히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학점이 후하다”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수업을 들으면서 법학이라 는 학문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관념적이고 추 상적으로 움직이는 대개의 법학과목과는 달리, 법조문과 관례, 재결례들이 바로 제 눈앞 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공인노무사로서의 제 삶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 II. 공인노무사와 노동전문기자

2년여의 힘겨운 수험생활 끝에 제2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실무수습과 직 무개시등록을 거치고 경험하게 된 실무는 제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노동문제는 우리네 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른다는 일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욕심이 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부분이 노동이었다면, 장차 제 자리를 찾아갈 부분도 노동이고, 저는 이 과정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노동전문기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 III. 노동전문기자에의 도전과 좌절

언론사 공채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언론고시라고 하지요. 언론사 공채시험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필기로 논술, 작문, 상식시험을 치르고, 그 후에 실무면접, 최종면접으로 판가를 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시험 삼아 응시해 본 모 일간지 필기 시험에 합격하여 실무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간지는 방송채널도 보유하고 있던 터라, 실무면접은 신문기자 실무와 방송기자 실무, 그리고 종합 면접으로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날 좋은 10월, 시청에서 안산, 여의도를 오가며 정말 즐겁게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는 제 천직이라며, 실무면접도 초심자의 행운으로 어찌어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불손(?)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꿈은 종합면접에서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정원석 씨는 노무사죠? 우리 회사에도 각 분야에 전문 기자들이 많은데.. 정원석씨 기사는 너무 통상적입니다. 내가 전문기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전문기자만의 새로운 시각이에요.”

### IV. 로스쿨 입학과 입시전략

그렇게 면접은 끝이 났고 저에게겐 고민이 남았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새로운 시각이란 뭘까, 전문성을 더 길러야 할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문제였을까... 고민 끝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법 중에 노동법이 접하는 위치를 명확히 알고, 그에 기초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자가 되려면 공부에 더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절대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암기사항이 많지 않아 다소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공부방법이 잘못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효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 중 알려드릴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법학적성시험(LEET)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LEET는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행히 언론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루었던 많은 시사주제들과 논술/작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LEET를 준비하면서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을 택하는데, 저는 잘 쓸수록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완결된 글을 구성하다 보면, 산개된 정보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어떤 주장에 어떤 근거를 들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문단 배치

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글짓기”라고 하지요.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반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엮는 것처럼, 글이란 많은 주장과 정보를 엮어 읽는이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글이 구성되는 원리를 알고 있다면 어디에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열되는지,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무엇인지 등을 한 층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제가 되어도 좋으니 완결된 글을 구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2. 자기소개서와 면접

사실 답이 없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설득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의 글(자기소개서)과 말(면접)에서는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시간상의 이유로 면접스터디를 하지는 못했지만, 면접은 가능하다면 스터디를 구성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짚는다고 흔히 이야기하듯, 부족한 부분은 자기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문제를 외워 틀에 박힌 내용을 발표하듯 대비하는 것 보다는, 자기 언어로 소화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제시문이 길고 사안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암기로는 대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접해서도 나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가치를 먼저 정립하여야 하는데, 법학도의 경우는 헌법이 그 중점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법학사 출신 분들께서 법학적 마인드(Legal Mind)라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이 된다.”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조리 있고 합리적인 대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위에 법학적 소양을 얻는 것은 입학 후에 할 일입니다.

읽으신 분들의 시간만 허망하게 헤드린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목적인 바를 이루며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올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8기로 입학하게 되는 백규하입니다. 부득이하게도 6개월가량의 짧은 준비기간만을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서 많이 부족했지만, 수험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특히 저와 같은 해외대학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이전의 경험

저는 학부기간 동안 일단 학부 4년을 충실하게 보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기 중에는 공부, 방학 중에는 다양한 인턴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수업을 선택할 때는 학점을 잘 받기 용이한 수업을 골라서 듣기 보다는 제가 정말 들어보고 싶고 흥미가 가는 수업 위주로 선택하였고, 매 여름방학기간에는 스타트업, 국제기구, 컨설팅 회사 등에서 인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이전에 저 자신을 파악하고, 진정 내가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3. Why 법학전문대학원?

저는 우선 입시 준비에 앞서서 “왜 내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조계 관련 서적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고민을 깊게 해보았기 때문에 실제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입시 준비에 전념 할 수 있었습니다.

#### 4. 법학적성시험

제가 본격적으로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 이었습니다. 매우 짧은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시험을 완벽하게 파훼한다기보다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였습니다. 준비 순서는 기출 문제 풀기/분석 -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학원수업 수강 - 마지막 리뷰와 컨디션 조절 등의 과정

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처음 몇 번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만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기에 5월 한 달 동안 언어이해 보다는 추리논증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이후 계속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점수 기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6월부터는 언어이해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전체적으로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동시에 지문의 정보를 머릿속에 체계화시켜서 답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생소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지문에서 위와 같은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느껴졌던 고전 제시문들을 따로 정리한 뒤 반복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막바지에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수강하였는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실전 처럼 시험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리논증의 경우 이러한 문제 유형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안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언어이해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제라도 확실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경우 수리추리 영역의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문제를 풀 때 일단 언어추리 등의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 수리추리 문제들을 푸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문제를 남겨두고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있었지만, 저의 경우 시간 안에 35문제를 모두 푸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문제를 건너뛰면서 문제를 풀었을 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추리논증 강의를 수강한 후 마지막 달에는 모의고사 수업에서 실전연습을 하였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단판승부여서, 시험을 망치게 되면 1년을 허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큰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수능 경험이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중압감 극복과 컨디션 조절이 특히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평소 따로 시간을 내어 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1주일 전부터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한 후 10분-15분 안에 꼼꼼한 아웃라인을 잡는 연습을 3회 가량 해보았습니다. 물론 논술을 주요 평가 요소로 다루고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5. 자기소개서

법학적성시험을 보고 일주일 정도 후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법전원 진학 동기나 미래 계획 등은 법전원 준비를 시작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해보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자기소개서의 대략적인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녹여내면서 제가 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와 미래 계획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세세한 질문보다는 전체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구조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진 자기소개서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도록 하였고, 자기소개서가 백화점식의 경력 나열이 아닌, 저의 그동안의 삶과 목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한 편의 에세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저의 주관과 성향이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첨삭을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 6. 면접

법학적성시험이 끝난 후 두 그룹의 면접스터디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10월 중순까지는 학원 수업은 한 달 수강하고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하고, 이후에는 지원한 학교 별로 스터디를 조직하여 학교별 성향에 맞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경험해봄과 동시에 발표 자세 등을 서로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7. 마치며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학부에서 뛰어난 역량을 증명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감을 잃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대학에서 로스쿨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김현우

로스쿨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2013년 여름이었다. 아무런 목표 없이 보냈던 대학교 1년은 나를 계속해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나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나에게 그것은 로스쿨에 가는 것, 나아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다.

굳은 다짐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기 시작했다. 홍콩에서의 학기는 9월에 시작했고, 영국의 대학 시스템을 따라 3년제였다. 원래대로 졸업한다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리트를 보고 면접을 준비해야했기에, 차라리 한 학기를 일찍 졸업하여 넉넉한 시간을 두고 입시를 준비하고 싶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반이었다. 촉박했지만 그렇다고 오랜 시간 바라왔던 교환학생도 포기하기는 싫었다. 어떻게든 1년 안에 최대한 많은 학점을 수강하고, 교환학생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1학년을 워낙 생각 없이 보냈기 때문에, 1년 동안 들은 학점은 고작 34학점이었다. 1년 반 동안 남은 68학점을 채워야 했다. 여태까지 학기마다 열렸던 수업의 목록을 모두 살펴보고, 또 그 중 나에게 필요한 과목들이 앞으로 열릴지 교수님들에게 끊임 없이 물어보았다. 계획을 모두 세워보니 조기졸업도, 교환학생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 후로 2학년 1학기에 22학점, 겨울학기에 3학점, 2학년 2학기에 다시 22학점, 여름학기에 9학점을 수강하였다. 열심히 사는 것에 탄력을 받아서였는지, 오히려 성적이 올라 매 학기 성적장학금 또한 유지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오랜 꿈이었던 런던으로의 교환학생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12학점은 그곳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2년 동안의 여름 학기가 끝나자마자 홍콩 생활을 정리하고 유럽으로 떠났다. 40일 동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페로제도, 아이슬란드를 거쳐 런던으로 들어갔다. 학교 수업은 아주 여유가 넘쳤다. 1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모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 수업들이었다. 런던에서의 생활을 꿈만 같았다. 물가가 비싼 것만 빼면. 축구도, 뮤지컬도, 연극도 원하면 언제든지 보러갈 수 있었다. 떠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떠났다. 프랑스, 독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모두 일주하였고, 마지막으로 프라하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4년 12월이었다.

로스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에, 일단 1월부터 시작하는 로스쿨 입시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에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다. 한글로 시험을 본 것이 거의 3년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극복하는 데 8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 이외에 또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냥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한자나 한국사를 따로 준비하였고, 한자 2급, 한국사 1급을 딸 수 있었다. 원래 계획은 국어능력인증시험까지였지만 항상 다른 시험과 겹쳐서 미루다가 결국 시험조차 보지 않았다. 그래도 해외에서 살다운 것이 도움이 되어서 영어가 크게 문제 되진 않았다. 그저 시험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고, 세 차례 응시 후 TEPS 933점을 받을 수 있었다.

8월에 리트시험을 봤고,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한동안 망연자실했다. 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자책도 하고, 무슨 자신감으로 다른 공부를 했나 후회도 했다. 복잡한 마음에 사흘 동안 절에 들어가 있었다. 다시 속세로 돌아오니 예상보다 평균 점수가 많이 낮았고,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쓸 점수, 아니 쓰면서도 매우 가슴 졸이는 점수가 나왔다.

하지만 더 애가 타는 것은 리트 점수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 봉사활동 0시간, 인턴 경험 없음, 법학과목 수강 없음,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한자 2급, 한국사 1급, 성적장학금뿐이었다. 자기소개서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다. 9월 한 달동안 내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생각'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버스에 타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자기소개서 생각뿐이었다. 그동안 썼던 일기들도 다시 보고, 대학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홍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되새겨보았다. 여러 법조인들이 쓴 책들도 읽어보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수없이 고민했다.

수십 번의 수정 끝에 나의 자기소개서에는 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콩으로 갔는지, 홍콩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공이었던 경영학에서 왜 법으로 길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수많은 법의 분야 중에 어떤 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그 꿈을 이루는 데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신경 쓴 것은 한국에서의 학생들이 겪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이 내용들이 한 편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유기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다녔던 로스쿨 입시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았는데, 인터넷을 떠도는 소문과는 달리 나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조마조마해 하며 내세울 것이 자기소개서밖에 없는 나의 얇디얇은 원서를 제출하였다. 가군은 한양대, 나군은 고려대였다. 몇 주 뒤 두 곳 모두 1차 합격 발표를 받았고, 면접을 봤다. 한양대 면접은 그래도 인성에 관한 질문이 있어 여태까지 나의 일기 속에 적혀있던 구절이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는데, 고려대 면접은 그럴 기회가 없었다. 고려대학교 면접을 본 후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지는 않았겠구나.'였다.

2주 후에 발표가 났는데, 결과는 두 군데 다 최초합격이었다. 나의 어떤 점이 메리트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자기소개서에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스펙도 없는 것에 대한 평계거리일 뿐이었다. 해외 대학을 졸업해서인가? 나이가 어려서인가? 답을 찾지 못한 채 여기까지 고민하다가 말았다.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입시를 끝낸 후 느낀 점은, 국내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의 스펙이나 점수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분명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자신에 대한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해외 대학 졸업 후 국내 로스쿨에 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또한 그저 한 번 걸어와 본 길일 뿐이기에 이 합격수기가 대표성을 지닐 수는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쌓여 나와 비슷한 길을 걸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로스쿨준비의 시작, 학부성적 관리

법과 전혀 관련 없는 학과를 입학했으나, 2학년 때부터 로스쿨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는 하나 씩 준비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학부성적 관리였다. 여기에는 단순히 수치상의 점수인 GPA뿐만 아니라, 향후 어떠한 과목을 더 수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

비법학사로서, 법학 과목 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복수전공이 경영이었기에, 회사법 과목을 이수하면서 법학 과목에 접근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철학, 논리학 등의 기초적인 교양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서, 합리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해갔다.

학교에서 나의 학부성적을 보는 이유는, 단순한 정량적 평가 요소인 GPA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학부성적은 정성적인 평가요소로도 작용한다. 로스쿨에 입학해서도 과연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지, 법학적 지식을 습득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을 임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 법학적성시험(LEET)와의 첫 만남, 2014년 7월

2016년 입학을 목표로 했지만, 남들보다 조금은 빨리 LEET를 준비한 편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를 풀면서 준비한 것은 전혀 아니다. 평소 독서와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책상위에 앉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만 6개월은 걸린 듯하다.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위주로 공부해오고, 평소 주기적인 공부습관을 들여놓지 않았던 대학생이라면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서 습관을 들이며 ‘언어이해’를 대비했고, 논리학에 기본서를 통해 ‘추리논증’ 기틀을 마련했다. 이 두 개를 병행하면서 12월부터는 논술도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각각 수능과 PSAT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접하면 나중에 정작 정말 봐야할 때에는 질려서 못 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5-6월 되면 기본으로 3회독은 하게 되는 문제가 기출인데, 처음서부터 기출에 매달렸으면 오래 달리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 관리를 잘 한다면, 틈틈이 다달이 시사 상식 책을 읽어두기를 추천한다. LEET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썩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당장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것이 남는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LEET는 입학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일 뿐 LEET가 모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LEET가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면접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7월에 와서는 OMR카드와 친숙해 질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수능 이후로 컴퓨터 싸인펜을 만져보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처음에는 마킹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킹 스킬도 부족해서 손이 벌벌 떨릴 수도 있다.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각보다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사실 모의고사를 통해 긴장감을 느껴보고, 실전 감각과 시간 관리 스킬을 숙지해 보는 것도 아깝지 않은 투자이다. 여담이지만,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나 등수에는 개의치 않는 것이 좋다. 수능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와는 다르다.

### 생각보다 귀찮은 관문, TOEIC

다른 어학점수가 있지 않은 이상, 영어 하나뿐이라면 900은 기본으로 넘겨야 한다. 학점과 LEET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지 않다면 930까지도 갖춰질 것을 조심스레 권유한다.

물론 학교마다 반영 비율도 다르고,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어가 당락의 잣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어라도 900초중반으로 갖춰 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서를 쓸 때 영어에서 밀리면 괜히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주눅 들기 십상이다. 그런 심리는 면접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늦어도 4-5월까지는 토익을 안정적인 점수로 마련해 놓을 것을 추천한다. LEET가 비교적 여유로는 1-2월동안 토익에 매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나중에 6월 넘어가면, 토익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9월까지 토익학원을 다니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된다.

### LEET는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

LEET가 끝나면 희비가 교차한다. 하지만 LEET는 여러 평가요소 항목 중 하나이다.

나에게는 GPA, 영어성적, 기타 경력사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관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나의 숨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다. 단, 교수님들께서는 이미 술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음을 염두하고, 솔직하게 쓸 것을 추천한다. 나는 교수님 손바닥 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짓말로 썼다가 탄로 나기 십상이다.

가능한 모든 경력들은 문서화해서 준비하고, 그 경력들이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자기소개서에 언급해보면 생각보다 자기소개서 쓰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기 시작하면,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 하나 매진해서 준비할 것은 면접이다. LEET를 잘 본 사람이 마지막까지 웃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면접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LEET 때문에 울더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기회는 면접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약하다. 틈틈이 읽어두었던 시사과 주요 쟁점 사회적 이슈를 정리해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학교마다 면접 방식은 다르지만, 상당수의 학교가 면접 때 밑줄도 못 긋고 눈으로만 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지원하는 학교에서 취하는 방식에 맞춰 연습해놓는 것이 좋다. (면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시설명회 때 물어보고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몇 대몇 면접인지, 필기는 가능한지 여부 등)

### 끝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춰야할 것 같은 마음에 내가 뒤쳐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가다 보면 어느덧 로스쿨 입학식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 스터디를 통한 입학 준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심현수

제가 이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의 대부분을 스터디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구성원들로부터 법학적 성시험이나 면접시험 등 입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었던 터라 사실상 제가 터득한 공부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정보를 취합하고 체계 맞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입시 준비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속에서 체계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체계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합격생 수기와 같이 출처가 명확한 정보 위주로 체계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라도 체계 맞는 방법들은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 각자 글을 이해하는 시간이나 정도도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공부방법이 모두 똑같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글을 꼼꼼하게 읽어가는 편이어서 글을 이해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오래 걸렸고 대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읽으면서도 저보다 빠르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더 나아지는 방법은 글을 정확하게 읽으면서도 빠르게 읽어내는 것이었는데 글을 빠르게 읽어 나가려고 하면 그만큼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정확도가 떨어졌고 정확도를 높이려다 보니 글을 읽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찌면 수험생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일 것입니다.

저는 많은 문제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읽는 속도를 올려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보다 더 천천히 읽으며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습니다.(저의 경우 읽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읽어 가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그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의 입시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의 경우 저는 3월과 4월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한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2-3시간을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날에 다시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구성원과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5월부터는 읽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추천도서를 꾸준히 읽었는데 스터디 구성원과 하루 10-30 페이지 정도의 글을 읽어 가면서 해당 내용의 핵심사항을 요약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서로 질문하면서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에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읽는 속도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보다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은 독서와 병행하며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점수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시간을 문제풀이와 답안지 마킹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마킹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 문제를 한 회치를 풀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하루 종일 그 문제를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문제 푸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소중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체력안배를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면서 완성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채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학적성시험과 관련한 저의 한 가지 경험은 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지문에서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오고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조금은 낯선 분야의 지문에서의 문제는 오히려 정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문일수록 자신의 배경지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어진 질문에 충실하게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 준비와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역시 스터디 구성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후에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등의 작성과 면접 준비로 바쁜 일정을 이어갔는데 스터디 구성원들과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돌려 읽어가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라든지 스터디 구성원들 앞에서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해 직접 답을 해보는 과정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 같은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저는 스터디 구성원들과 준비를 하면서 답변 도중 제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잘 하여 실수 없이 잘 해내면 좋겠지만 실수를 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모습도 교수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는 성실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에 가까울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쁜 방법들은 피해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하나같이 의아해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을 제쳐두고 전혀 다른 분야인 법 공부를 하려는지 궁금해 했다. “입안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멋진 답변이 있지만 나에게는 너무 거창한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하지도, 이타심이 넘치지도 않기에 때문이다. 그저 내겐 소박하나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물론 나도 경제적인 풍요와 즐기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선 스스로가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큰 나무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그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엔 여러 학문이 있겠지만, 평소 나의 성격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법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법학만큼 우리 일상과 관계가 깊고 영향력이 큰 학문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과 삶에 대한 고민이 결국엔 나를 로스쿨 진학으로 이끌었다.

로스쿨을 가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진료와 입시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진료를 끝마치고 늦은 시간, 집에 와서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나면, ‘아 오늘은 쉬고 싶다’하는 유혹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나로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결코 낭비할 수 없었다. 평일에는 집과 카페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였고, 진료가 없는 주말에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진료 사이사이 환자가 없는 틈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의 자투리 시간도 놓치지 않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정확한 독해와 명확한 근거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선지선택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중점으로 연습하였고 좋은 점수로 연결될 수 있었다. 따로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모의고사도 거의 풀지 않았다. 면접은 학교별 기출문제를 구해서 혼자 시뮬레이션 하면서 준비했고, 자소서도 작성 후 주변인들의 조언을 얻었다.

물론, 로봇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 몸과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거나 사우나, 게임, 노래방, 운동 등으로 중간 중간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로스쿨 진학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3년이란 시간과 지금의 내 나이를 고려해볼 때 여러 측면의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삶의 큰 선택만큼은 스스로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엔 어떤 결과든 짊어질 각오와 책임감이 함께해야 함은 물론이다.

운이 좋게도 내겐 항상 나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고, 응원해주는 주변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수기를 적음으로써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밝은 앞날을 기원한다.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 합격자 최준수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수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기에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도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은 취하고 맞지 않는 방법은 버리는 게 수험 생활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저의 수험생활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 2. 수험생활

##### 가. 학점

저는 처음부터 로스쿨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학점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년 때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며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23학점을 꼭 채워 들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입시가 끝날 때까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매 학기 학점관리를 잘해서 평균 평점 4.0 이상을 만들어 놓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생활도 학교생활이기 때문에 로스쿨 교수님들이 수험생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해나갈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나. 토익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 토익, 리트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리트와 병행하기보다는 토익만 먼저 집중적으로 해서 단기에 끝내고 리트를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토익은 집중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독해를 풀며 듣기를 해서 감을 유지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트 시험이 다가올수록 토익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리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다. 리트

저의 경우는 리트 기본강의를 온라인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결국은 문제를 푸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회차 별로 시간을 재고 푼 뒤 못 푼 문제와 틀린 문제를 해답지를 보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유형을 익히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나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나가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추리 논증보다 언어이해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기출 지문이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을 시간을 재고 읽은 뒤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해에 자신이 생기고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지문씩 읽고 요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점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시간체크 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고 분석하길 바랍니다.

##### 라.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니 꼭 리트가 끝나고부터 바로 써나가길 바랍니다. 미리 지원학교를 정하고 성적 발표 날 때까지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쓰시고, 스테디를 통해 돌려보거나 지인들에게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너무 여러 활동들이나 경력들을 넣게 되면 잘 읽히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하고자 하는 진로와 연관된 경험들을 선별하여 진로가 확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익이나 리트를 준비할 때부터 글 소개가 될 만한 것들을 메모해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법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마. 면접

면접은 스테디를 구성하여 시사 문제와 딜레마 문제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내용을 익히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스테디원들끼리 공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지식을 암기했고 논리를 세워 주장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면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 면접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발음이라든지, 발성, 표정, 태도 등 스테디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교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혼자 주제 한 가지를 뽑아 거울을 보고 논리를 세워 말하는 연

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표정도 살피고 스터디 원들로부터 피드백 받은 부분을 교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3. 나가며

로스쿨 입시가 끝나고 최초 합격을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추가 합격을 기다리지 않고 크리스마스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기분을 변호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필드에서 뵈 날을 기약하며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 기적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유나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로 입학하게 된 박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선선발이라는 만족스러운 입시를 끝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존감 하락과 불안함, 그리고 막연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패나 성적 하락으로 좌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 1. 본격적인 LEET 준비에 앞서 준비할 것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하여 탄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시절 메가 로스쿨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 가능성, 보완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리트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요소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것들을 다지고 가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토익/토플 등의 영어성적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성적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가 토익700을 넘으면 공인영어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900점대 후반이 되어야 정말 유의미한 스펙이 되신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토익이나 토플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트 준비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리트에서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요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리트 준비기간에 영어성적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모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토플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토익보다 토플 고득점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차후 리트 성적이 잘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 불능으로 원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2) 학점준비

제가 생각할 때 입시는 학점, 리트, 자기소개서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에는 이미 학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학점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부 시절 법학과목도 수강하였고, 학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점관리에서는 단순한 성적 자체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적도 중요합니다. 입시 설명회에서 다양한 로스쿨 교수님께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양, 기초과목 등을 통해 높은 성적을 얻은 것보다 자신의 학과 전공과목, 법학과목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좋은 학점을 받으신다면 성실함과 로스쿨 3년 동안의 충실할 수 있는 열정의 증거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자기소개서 미리 생각하기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한 항목이자 변수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 한들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높은 성적을 받았으나 자소서로 1차 탈락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수험 생활 이전에 미리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왜 되어야 하는지, 왜 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리트 끝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1달에서 1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자기소개서를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리 자신의 스펙이나 활동 내역들을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스펙들을 증빙할 자료들도 풍부하게 구성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1월부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지, 왜 로스쿨인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 것인지 수차례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의 결과를 자기소개서에 담았습니다.

## 4) 법에 관련된 활동들

법학과가 폐지된 이후 갈수록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비법학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쌓았는지 혹은 충실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법에 관심이 많았고 그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과목 수강, 법률 활동, 재판 참여 등 다양한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법학 과목을 듣거나 재판참여, 법률연맹, 인권 동아리, 봉사활동, 법률재단 인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관심을 표출할 수 있으니 많은 리서치와

그에 입각한 활동을 하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제 자기소개서에 강점을 내비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2. LEET 준비

저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시인 분들은 1월부터 탄탄히 준비하시는 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LEET에서 130점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출의 반복과 메가 로스쿨에서 진행하는 파이널을 통한 실전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5월부터 6월까지 문덕윤 교수님과 조호현 교수님의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들을 쌓고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7월부터는 파이널 강의를 통해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고 오답노트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법학적성시험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등 실전처럼 연습을 하면서 신체리듬도 맞췄습니다. 수없이 모의고사를 치고 실전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시험에서도 별로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1) 언어이해

저는 문덕윤 교수님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들으며 리트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원준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저와는 수업 진행방식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많은 고민 끝에 문덕윤 선생님의 파이널을 들었고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언어이해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읽기에 급급해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이해와 구조 독해를 통해 거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지문을 크게 본다면 그 이후에 문제는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독해를 하고 그에 입각한 논리와 사고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문제풀이 시간도 단축될뿐더러 오답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파이널을 통해 제재별로 다양한 지문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전에 들어가도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의 강점은 실전에 대해 예행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에는 더욱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나 문제 질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이나 기술지문에 많이 약했는데, 그러한 제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해법이라는 것을 문덕윤 교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스테디를 구성하여 토론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올바른 풀이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시인 분들에게는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기출분석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기출문제 스테디를 만들어 서로 모르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문제풀이 방식을 공유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더불어 법학적성시험협의회에서 출판한 '법학적성시험연구'라는 책을 밑바탕으로 기출문제 공부를 진행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16학년도 언어영역에서 30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 2) 추리는중

저는 철학을 전공하여 학부시절 미리 기호논리학이나 논리학 개론 등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였고 그로 인해 명제논리 등의 논리학과 기호 사용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김우진 교수님과 조호현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잡고 깔끔한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면 김우진 교수님 강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풀이나 강의 스타일도 차분하신만큼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실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리학 기본과 기초를 잡기 위해 논리게임바이블을 통해 연습한다면 탄탄하게 기본이 잡힐 것입니다.

저는 조호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고득점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의 질문을 다 받아주셔서 잦은 피드백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나 2016학년도 리트는 문제형식이나 혹은 문제 종류가 많이 바뀌어서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차분히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도 중요한 것은 기출의 반복이겠지요. 추리는중은 기출문제 스테디를 할 때 가장 시간소요가 많이 되지만, 그만큼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무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는 기출문제의 반복과 다양한 문제를 접함으로써 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영역에서 35개 중 28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 3) 논술

논술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일지 몰라도 최소한의 답안을 쓰지 않으면 분명히 감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량도 적절하게 맞추어야 하고 그 글에서 구조와 논리력이 담기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평소에 안하시고 가신다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논술 논지와 제시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논술 또한 여러 번 기출이라고 파악하고 써보신 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 3. LEET 그 이후

리트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자소서와 면접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소서나 면접을 망쳐서 떨어지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트 끝났다고 쉬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자신을 더 채찍질해서 달리시길 바랍니다.

### 1) 원서 지원

원서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입시 성공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정쩡한 두 곳을 써서 좋은 성적임에도 떨어지는 사람도 보았고, 낮은 점수임에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최종합격을 한 사례들도 보았기 때문에 원서전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간에 단순히 순위 매길 수 없는 곳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보는 영역이나 중점 부분이 다르고 그만큼 점수 반영비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교 홈페이지나 학사 일정 등에 공시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요소까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를 쓰실 때 본인의 정량이 평균 합격자 정량보다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 본인 학교 동문들이 매년 어느 정도 합격했는지, 본인이 원하는 목표 혹은 꿈을 위한 길이 어느 학교에 더 적합한지, 아웃풋은 어떤지, 등록금과 장학금은 어느 정도이며 선배들이 어느 분야에 진출해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제 꿈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 및 좋은 교수님들, 선배들의 진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 2) 자기소개서

저는 문턱을 교수님께 언어이해를 배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첨삭도 교수님께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 모두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첨삭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써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 인생에서 사소해서 지나쳤던 부분들, 강점인 부분들, 막히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주셨기 때문에 더 알찬 자소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좋은 전략과 좋은 자

소서로 승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고치시는 게 자기소개서의 답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혼자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초안에서 퇴고까지 몇 십번을 넘게 고쳐 쓰고 지우고 읽는 과정을 견뎌내신다면 더 탄탄하고 자신감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테디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준비를 위한 스테디를 2개 정도 병행하여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나 표현 방법, 내용 등이 오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기소개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면서 첨삭자의 위치에서 글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볼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등 매우 세심하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균관대 로스쿨 자기소개서 양식과 2016학년도 입시 양식을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더불어 질문을 여러 번 읽고 이 부분에 어떤 답을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구성은 어떻게 할지 수차례 고민하였고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간결한 문체 속 핵심적 내용으로 2장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자기소개서를 써낼 수 있었습니다.

### 3) 면접

저는 스테디를 통해 김종수 250제를 보았고 기출문제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우선 선발되어 별도의 면접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쟁점에 따라 답변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 인권법 등의 필수 도서들은 꼭 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말해보는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촬영을 통해 자신의 말투, 습관, 자세를 파악해서 교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4. 마치며

정말 이것저것 제가 느끼거나 했던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네요. 제가 누구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혹여나 제 입학수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입시라는 게 기나긴 시간 동안 스스로와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외롭고 힘겨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추리도 논술도 자소서도 면접도 결국 일 년의 과정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견뎌내는 멘탈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몰아세워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공부스타일이 있듯이 각자의 멘탈 관리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페이스를 찾으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성균관대 로스쿨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찾아다녔고 합격한 선배들의 공부 방법, 자기소개서 스타일, 성균관대의 모토 등 여러 가지를 듣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가 원서를 쓴 성균관대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입시설명회에서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다양성의 도가니, Melting pot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벌 좋은 사람, 성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색을 가지고 충실히 그리고 소신껏 살아온 수험생들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만을 믿지 마시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입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강대에서 학부를 마쳤고 이제 다시 성균관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동기 분들을 통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이후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조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합격생들이 법학 공부를 하면서 토대를 다지고 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 나가시는 동기 분들 그리고 스테디 원들을 만나 많이 반성하면서 공부에 더 채찍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서도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문제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많은 흔들림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정착하길 바라면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실 많은 분들께 이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most astonishing thing about miracle is that they do happen.(기적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적을 응원하겠습니다!

## 일히일비 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김익희

안녕하십니까? 2016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8기로 입학한 김의 회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느 분에게든 희망이 되고 또 잠깐의 휴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 법인에서 1년 근무 후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7기와 8기 두 번의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 점수가 10점 이상 향상하였습니다. 제 부족함을 알기에 뽑내려는 의도는 없고 다만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지원자 여러분들을 훗날 어떤 인연으로 뵈게 될 지 무척 기대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지원한 계기로부터 시작하여 준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I. 지원동기 - 지원동기의 중요성

평생을 검찰에서 일하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년기부터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이나, 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컴퓨터학을 이중전공으로 하려던 적, 돈을 인생의 목표로 하여 벤처기업을 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업보다는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직장생활경험, 단체의 대표 활동 등 직접경험과 독서와 대화 등의 간접경험을 중시하며 꾸준히 미래의 업을 찾으려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생 검찰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법조 직업에 종사한다면 ‘행복’하리라 판단하였고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과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동인이 절실함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 길을 가는 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년의 입시과정과 3년의 로스쿨 생활을 훌륭하게 버티기 위함이고, 장기적으로는 평생을 힘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지원동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당장의 몇 일의 공부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 II. 리트 준비 -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근무하던 회사의 특성 상 3월 말까지는 매일 새벽까지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본격적

으로 리트를 준비하게 된 것은 4월부터입니다. 그 준비는 강의 수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본래 계획은 추리 강의는 기본부터 커리큘럼 상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언어는 기본 강의만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추리에 약하고 언어에 자신감이 있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어 강의를 기초부터 기본, 심화 순서로 수강하고 추리 강의는 기본 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추리 강의는 생각보다 그 효용이 크지 않았고, 언어 강의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트 공부는 아직 어떠한 방법이 최선이다 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원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따라가며 공부하시되 본인에게 맞지 않다 싶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을 추가해서 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수강 시기(4~6월)에 강의 교재를 기본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강의 수강이 모두 끝난 무렵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기출문제를 시간제고 풀었습니다. 하루에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두 시간이면 세 시간이건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했습니다.

실전 연습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학원 모의고사를 모두(당시 2회 시행) 응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과분한 점수를 받았고, 두 번째에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와는 그 문제 구성과 성질 등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점수에 휘둘리지 마시되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연습한다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트 시험 문제를 풀 때의 기분과 실제 체점 결과가 크게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마시고 모두에게 어렵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풀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III.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응시

리트 시험 후부터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초안이 완성되고 스터디를 꾸려 서로에게 첨삭을 받으면서 글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많은 이들에게 지적받는 사항 중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지금에서 생각해보건대 그 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입시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스터디원들과 모의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학 별로 문제 출제의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출제 문제를 예상

하고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접스터디는 실전과 유사한 상황(시간, 방식 등)을 구성하여 반복하여 연습하는 정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라도 질서 정연하게 표현하고 나온다 정도를 목표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는 1년간의 수험과정에서 행한 노력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보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원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요소에서 불리한 경우라면 허탈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요소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인 것 같습니다. 리트가 정해진 이상 이 두 요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 III. 맺음말

7기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리트의 경우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험교재 등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0점 초반 대의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공부방법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8기 입시를 준비하면서는 강의 수강을 시작으로 공부하였고 마지막을 기출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130점 중반 대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트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시험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식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오를 수 있는 점수의 한계치는 있을지 모르나, 노력해서 오르지 않는 성격의 시험은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희망하며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트 외에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7기, 8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로스쿨 입시가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 예컨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사생활이나 학업과 병행하여 입시를 치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오히려 막막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등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입시를 치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목표로 하는 로스쿨에 진학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많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로스쿨에 가려고 했는가를 되새기면서 준비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응원하겠습니다.

## 자신에게 맞는 준비 방법을 찾아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합시은

### I. 들어가며: 로스쿨로의 진로 전환

먼저 저의 합격 수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성향에 의한 준비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므로 이 글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참고해서 적절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적영역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일하는 꿈을 갖고 경제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길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쉬운 고배를 마셔야 했고 비교적 뒤늦게 준비를 시작함에 동기들이 하나씩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도 났고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다시 시험공부를 하기에는 제 심신이 너무 지쳐있었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달간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법조인의 길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격해서 로스쿨을 다니는 친구들과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제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고 경제학이라는 전공에 갇혀있기 보다는 법조인을 위한 도전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로스쿨로 진로를 변경한 것처럼 저학년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나중에 법조인이라는 꿈을 시작한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준비기간은 짧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성실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셨다면 늦었다고 낙담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II. 리트 시험 전까지 입시 준비- 평가요소 중심으로

#### 1. 학점관리

로스쿨 입시의 정량평가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LEET, 학부성적, 외국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트 성적과 외국어에 비해 학점은 대학생활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입시에서도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법대학부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의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부생이라면 치밀한 학점관리로 최대한 학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발전형에서 학점 비중이 매우 컸던 한 주요 로스쿨의 경우 주요 단과대

수석 분들이 많이 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학부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의 학습량을 압축해 놓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방대한 3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우수한 학업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생들이 저학년때부터 학점 관리를 시작해서 학점을 뿌리는 강의만을 듣는다거나 학점이 낮게 나올 것 같은 과목을 일부러 재수강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표적으로 2016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재수강을 한 과목 개수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학점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학과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어려운 과목만 골라들으면서 힘든 학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 학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밝혔듯이 로스쿨이라는 진로를 비교적 늦게 결정해서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학점을 올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입시를 경험해보니 학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지원자가 극도로 높은 학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풍문에 지나치게 겁먹지 마시고 항상 성실히 대학생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2. 외국어 : 영어와 제2외국어

영어공인시험 성적은 정량평가에서 자격요건이 되므로 반드시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학점도 리트성적도 좋은데 영어성적 때문에 가고 싶은 로스쿨에 지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영어공인시험 성적을 꼭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점차 영어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격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추세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성적이 높은 것보다 학점이나 리트성적이 높은 사람이 훨씬 합격에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제 사건으로 제2외국어의 경우 점수가 없어도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2외국어 인증시험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법은 일본법을 계수하여 자리를 잡았고 일본법은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보통법 국가들과의 교류

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들 국가들의 법과 관례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실력 있는 법조인이 되는데 제2외국어 실력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해서 HSK 5급을 취득하였는데 좀 더 공부해서 6급을 따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의 개인적 경험이고 생각이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서서 입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 대외활동과 자기소개서

대외활동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배운 것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법조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대외활동을 주로 했는지를 보면 지원자의 성향과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갖고 꾸준히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신다면 정성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과 관련된 대외활동은 그림자배심원활동 하나 밖에 없었고 동아리도 법과 전혀 상관없는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도 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인턴경험도 없었습니다.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저와 입시를 함께 준비했던 분들도 법에 대한 대외활동으로 자기소개서를 전부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조인의 자질과 자신이 한 대외활동이 연결되어있음을 밝히고 자신이 이 경험으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능력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였다면 법 공부에서 중요한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이기에 한자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성실히 하셨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느꼈다면 꼭 법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모임이나 수업에서 열심히 써서 좋은 성적을 받은 논문 같은 것들로도 자기소개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지난 경험들을 법조인의 꿈과 연결해 조리 있게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 4. 리트 - 풍문에 휩쓸리지 말고 꾸준히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열심히 공부해도 리트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아서 소위 리트신수설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니까요. 만약 이 말만 믿고 준비하지 않고 시험 보셨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입시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기 때문이죠. 공부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리트 성



적이 공부량에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의고사나 기출을 풀었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학기 종강 직후 교내에서 스터디를 꾸려 스터디원들과 실제 시험시간과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시간동안 모의고사와 기출을 풀고 이후 해설강의를 들은 후 남은 의문들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시험방식에 익숙해진 덕분에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점수가 정체되었고 메가로스쿨에서 실시한 두 번의 전국모의고사에서 받은 성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크게 상심했었습니다. 또 저보다 훨씬 잘 푸는 스터디원들을 보며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면 그때부터 의지가 무너지고 제대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학원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변 선배들과 스터디원들과의 교류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치에 못 미치는 자신의 점수로 인한 좌절감과 자신감 하락은 스스로가 다독이고 다잡지 않는 한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점수가 결정되는 때는 실전시험입니다. 그 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전에 잘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고 실전에서 잘하면 과거의 모든 괴로움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항상 결전의 날을 떠올리시면서 꾸준히 소처럼 뚝뚝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역별 공부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4-1. 언어이해

무엇보다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어영역에서 시간이 빠듯하기를 해도 뒤에 한 두 지문 전체를 못 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지막 지문을 아예 읽지 못하고 찍는다면 추리논증에 비해 점수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동시에 자신이 틀린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반복적으로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언어이해도 물론 문제를 유형화할 수 있지만 추리논증과 달리 문제별로 정해진 풀이법

이나 공략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과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트 지문 수준이 매우 높고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나온 지문을 읽을 때는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 독서를 하고 이것저것 관심사를 넓히는 게 장기적인 준비라면 준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트 시험 전 몇 달 동안 독서를 한다고 언어이해 점수가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와 기출 풀이에 주력하시고 지문분석과 문제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4-2. 추리논증

저는 언어이해에 비해 추리논증이 약했습니다. 모의고사나 기출을 풀면서 문제 유형별로 골고루 틀리긴 했지만 수리추리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언어이해도 마찬가지로 추리논증은 자신의 강점을 더욱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틀리는 유형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풀고 학원 강의 선생님이나 스터디원들이 푸는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고 따라하면서 점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방하면서 계속 연습하다보면 중 난이도 정도의 문제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실전 전에 푼 모의고사에 목표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계속 나와서 아예 목표 지원 대학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 전국모의고사 때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보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리추리의 경우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신 이전 기출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하면 취약한 유형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5. 논술

논술의 경우 그야말로 단시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에 신경쓰다보면 논술은 소홀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위해 강의를 듣거나 따로 시험 직전까지 스터디를 하기 보다는 기출 문제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글의 개요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달밖에 준비를 하지 않아서 논술 문제를 많이 풀지는 못했지만 혹시 좀 더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을 풀어보시고 모범답안과 비교하면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쟁점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의 요지와 문제의 요지를 잘 이해해야 동문

서답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역시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독서를 하는 것이 유익한 준비방법일 것입니다.

#### IV. 리트 시험 이후 - 자기소개서와 면접

##### 6. 자기소개서

앞서 대외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대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덧붙이자면 자기소개서 작성은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수정도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연결해서 설득력 있게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어렵고 제한된 분량에 하고 싶은 말을 간결하게 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성한 후, 주변의 멘토나 스터디원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반복적인 퇴고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배울 점이나 흔히 하는 실수들을 찾아 자신의 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친구나 선후배에게 첨삭을 받으시면 자신과 스터디원이 놓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자기소개서 마감 전날 밤을 새고 제출 직전에 한 문장을 수정했는데 밤을 새서 정신이 없었던 탓에 비문을 만들어버렸고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미리 완성했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일이 없도록 꼭 시간의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첨부되는 각종 서류도 급하게 준비하다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면접

저는 면접 스터디에서 빈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 대학의 기출문제를 모의면접형식으로 스터디원들과 풀면서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답이 있는 문제를 내지만 다른 대학들의 경우는 답이 있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도록 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다른 면접 방식을 고려해서 자신의 지원 대학에 맞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면접문제를 족집게처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다루었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찾아본 것들이 실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의 경우 로스쿨 진로를 결정하고 읽었던 책들을 면접에서 언급하면서 말할 거리를 확보해서 주

어진 시간을 양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스터디로 준비할 때는 쟁점과 기출문제가 정리된 교재가 유익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만의 생각이 확립되지 못한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V. 마치며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저의 공부방법이 반드시 합격을 위한 정석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마다 특성과 경험이 다르고 지원대학과 희망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단순히 수험기간 동안의 노력과 성적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미리 자신을 준비된 인재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들보다 준비가 늦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과공부에 성실히 임했고 다양한 분야에 견문을 넓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훌륭한 인재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오랜 준비기간 동안 열망했던 훌륭한 법조인의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과 의사에서 의료전문법조인을 꿈꾸기까지

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잔병치레를 자주 했기에 질병과 약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차지원을 통해 의대로의 진학을 결심하였습니다. 6년간의 의과대학 생활과 5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마친 후 안과 전문의로서 세상을 보는 ‘눈’을 고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타과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의료 정보의 비대칭으로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병원이나 의사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지나치게 방어 진료를 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학과 법학의 융합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늦게나마 의료전문법조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사법시험 응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망설임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여러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제도권 안에서의 소속감과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평생의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학업량에 여러 번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후 의사가 되어서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와 선후배들은 든든한 동료임과 동시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더불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부 학점, 공인영어점수 그리고 LEET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학부 학점의 경우 졸업생인 저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의과대학의 특성상 석차에 비해 학점이 낮았기 때문에 공인영어성적 등 다른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공인영어성적 또한 이제까지는 최저 기준만을 만족하면 되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필요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였기에 실강보다는 인강으로 기초를 쌓고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LEET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는 LEET 시험 4개월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독서 스테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LEET 준비는 먼저 기출문제를 통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였고, 이후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에 맞춰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8월 LEET가 끝나면 더웠던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입시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는 설렘도 잠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저와 같이 특이 경력을 가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정된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그토록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짧은 자소서 안에 녹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읽고 그리고 또 고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면접의 경우 스테디를 꾸러 직접 면접을 진행하며 예상 질문을 만들어 대비하여 실전처럼 연습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 마치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영어와 LEET가 끝나면 숨 돌릴 틈 없이 자소서와 면접의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칠 때마다 항상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초심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 그리고 함께 했던 스테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변호사 시험까지 다시 긴 마라톤을 앞두고 있지만 제가 항상 가고자 했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긴 마라톤의 끝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앞서 나가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신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윤리학에서 법학으로 (서양철학 학사 수료생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허다운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시민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불법에 투쟁하는 적극적인 법 감정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을 거듭하고 나서야 법과 사회는 진일보할 수 있다. 한편, 투쟁은 사회의 분열과 순응 사이에 놓여 있다. 투쟁이 격화일로에 빠져서 사회 전체를 붕괴시켜서도 안 되며, 반대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비판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각 시민 개개인의 ‘윤리 의식’일 것이다.

사람들의 윤리는 그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저항 정신을 반영한다. 즉, 시민들은 소위 ‘헬조선’이라 일컬어지는 인간 소외, 인간의 수단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윤리정신이 모여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정신을 구성한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반영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사람이 살만한 사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우리 시대의 정신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론화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의 문제 제변에 놓인 핵심을 발견해서 언어로 표현하여 사람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자 나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대학원에서 서양철학(윤리)을 공부하였다.

6년을 철학 책에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했다고들 하는데, 어떠한 시대적 조류가 시작되는 것과 이것을 포착하여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풀어내는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가령 시장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철학도로서의 나는 높은 건물에서 아수라장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숙고한 나머지 최소 십년은 지나야 이미 끝난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사회의 문제를 헤쳐 나가고 싶었다.

이를 깨달은 계기는 작년(2015년) 6월로, 내가 한창 대학원 석사 종합 시험을 위해서 플라톤의 『국가』와 고군분투 하고 있었을 적에 일어났다. 내가 열심히 윤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나를 제외한 부모님과 동생

이 크게 다쳐서 가족적 위기를 겪었다. 아직 사고의 상대방은 찾지 못했고 지금도 가족들은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거국적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가(擧家)적 사태에 놓인 나는 이윽고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경찰서를 오고 가면서 윤리적 언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나 어떠한 범죄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내가 배웠던 언어가 윤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을 겪은 것이다. 또한 사건에 대해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집안의 고통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러한 피해자들의 문제의식에 나름대로 응답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결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를 알아본 끝에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리학에서의 문제 제기는 학술적 차원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 인간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될 정도로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나는 법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싶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회복적 사법을 현장에서 실천하여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었다. 윤리학적 언어로는 응답할 수 없었던 것들도 법적인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핵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윤리학에서 법학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이며 나 나름대로 시대정신에 응답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학에서 법학으로 가는 여정이 월경(越境)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두 과목을 한 곳에 어우르는 통섭(統攝)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사회의 기저에 놓여진, 지금까지 마땅하다고 믿어왔던 가치 체계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윤리적 통찰이 배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삶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학적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초여름에 느닷없이 법학 적성 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준비해야 했으니 많은 고충이 따랐다. 게다가 나는 집안 문제도 함께 도와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석사생의 신분이었으니 식비를 최대한 줄여서 문제집 값을 대어야 할 정도였고, 삼시 세끼 대부분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바람에 건강을 상해서 크게 앓았다.

그러나 집안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나의 삶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선택했기 때문에 고된 수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나의 선택, 그리고 불과 8주에 한정된 수험 생활에 불안이 스며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합격하는 원동력이었다.

로스쿨에 합격한 이후 인문학을 전공했던 학생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에 걱정을 표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현상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진리를 추구하다가 갑자기 실제적인 법학을 접하면 적응이 힘들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리학과 법학은 좋은 사회와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줄기이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곳곳하게 능력을 갈고 닦는다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자 한다.

## 로스쿨 합격수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임원재

### 1. 시작하며

2016학년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임원재입니다.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 참 감사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여 해양경찰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법학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입대 이후 경찰 공무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법에 대한 열정과 법조인이라는 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학 이후 로스쿨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2014년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약 1년 정도의 수험생활을 거쳐 올해 로스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다른 로스쿨 합격 수기를 보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혹여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부족하나마 수기를 써 봅니다.

### 2. 수험생활

#### (1) 시작

시작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 모 방공부대의 위병소에서 시작합니다. 위병 조장에게 전역증을 내밀자 위병조장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저에게 악수를 청한 뒤 게이트를 열어줬습니다. 약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와 눈앞의 눈을 바라보며 몇 가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법학을 공부하고 법조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 앞으로의 목표와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부모님께서도 잘 해오던 경찰 공무원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반대하셨습니다. 계속 로스쿨을 주장했다가는 대학교 등록금이 끊길 것 같아 우선은 공무원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복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개월 뒤 2013년 3월에 곧바로 대학교 복학을 하였고 법학을 복수전공 하였습니다. 동시에 로스쿨을 위해 4학년이 되는 2015년 한해를 로스쿨 입시를 위한 LEET 및 면접 준비로 보내기로 하고 그 전까지 2013년과 2014년에는 학과 성적과 토익, 봉사활동

등 등에 전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13년은 해양경찰학과 법학을 동시에 이수하고 교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러모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가끔 전주에 들러 법전원 건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 (2) 본격적인 입시준비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2014년 9월부터 토익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기본적인 실력만으로 시험을 보니 500점 중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LC였고 RC 점수는 100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곧바로 토익 공부에 들어갔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위해 교내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들어와 본격적인 입시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려던 계획은 토익 준비가 길어지고 또한 해외봉사활동으로 캄보디아를 다녀오게 되면서 연기되어 2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학과에서 로스쿨 준비를 하던 친구를 만나 함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3) LEET - 언어와 추리

우선 가장 큰 문제는 LEET였습니다. 부끄럽지만 2015년 3월에 들어와서야 실제 시간을 재고 기출을 풀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다른 과목보다 '언어'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터라 기본 실력만으로도 100점은 넘길 거로 생각했지만 90점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조바심과 좌절감이 찾아왔지만, 천천히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언어이해 과목에 필요한 각 분야의 추천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대여한 후 읽어 나갔습니다. 깊은 지식보다는 넓은 지식이 필요했기에 해당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는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경우 '정의란 무엇인가'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기문 교수의 한국인을 위한 서양사', '미학 오디세이', '철학 콘서트' 등을 읽었습니다.

또한 추리에 있어서는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호 논리학부터 자그마한 팁까지 꼼꼼하게 기초공사를 해나갔습니다. 문제 하나를 더 많이 풀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월까지의 언어와 추리 모두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많이 푸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틀린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언어 이해의 경우 틀린 문제가 있다면 '나는 지문의 이 부분을 보고 1번이라고 선택했는데, 출제자는 이 부분을 보고 3번을 답으로 했다'라는 식의 메모를 하고 이를 워드 작업하여 프린트한 뒤 오답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추리의 경우는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그 과정을 적은 뒤 '풀이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엮어나가기 시작했는가'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예 풀이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표시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한 번 풀어보곤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사설 모의고사를 두 번 치르며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7월이 되면서 이전 LEET 기출문제와 PSAT, PEET, MEET 등을 통해 많은 문제를 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에 일회일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오답 정리는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날 풀어본 문제는 반드시 그날 워딩작업을 통해 프린트하여 잠들기 직전 읽어보았고, 아침에 일어나 또 읽어보았습니다.

LEET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문제의 비율을 줄여나가고 풀어본 문제의 비율을 늘려나감에 따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4) LEET - 논술

논술의 경우 비교적 늦게 준비하였습니다. 시험을 보기 3개월 전에 처음 논술을 시작하여 딱 기초강의 하나만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강한 뒤 최대한 많이 써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많은 로스쿨 준비생들이 논술의 중요성을 비교적 낮게 두고 있고,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직접 작성해보는 기회를 거의 갖지 않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모범답안을 읽는 것만으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으며 반드시 시간을 재며 직접 답안을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모범답안과 비교해보아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LEET 입시에 있어서 작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 (5)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긴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출일 2~3일 전에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도 보았지만, 저는 한 달 동안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남들에 비해 사회 경력도 없고, 영어 성적, LEET 성적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도 조금 섞어볼까 생각했었지만, 진실만을 적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부분에서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와 군대를 막 마치고 나온 25살 학생이 남들에 비해 월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연스러운 이력일 것이며, 교수님들 역시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이라는 부분에서 더 큰 기대치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중점을 두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적었고 이를 학교 교수님과 로스쿨 학생, 주변 변호사님들에게 첨삭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줄수록 수준 높은 글이 탄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만큼 '내가 원하는 자기소개서'가 아닌 '타인이 보기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소개서'가 아닌 '타인이 보고 싶은 나 자신의 소개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종 결정의 순간에서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6) 면접

LEET를 마치고 함께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던 친구와 함께 곧바로 면접 스테디에 들어갔습니다. 1차 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적절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스테디에서는 250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에 1인당 5 주제씩 공부를 한 뒤 스테디 모임에 나와서 다른 스테디 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사문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2015년 1월부터 면접에 나올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꾸준히 메모해온 덕분에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면접에서도 역시 시뮬레이션, 즉 논술과 마찬가지로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면접상황과 같은 긴장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면접 스테디에서 시뮬레이션 중 압박면접을 철저히 준비해 온 것이 실제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그 밖의 중요한 것.

#### (1) 원서접수

LEET가 끝나고 나면 유명한 로스쿨 입시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상에는 '올해 어느 학교에서 자교생이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이다', '올해 이 학교에선 법학사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등의 온갖 허위정보로 점철된 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 로스쿨 입시 커뮤니티를 멀리하고 오로지 저의 판단을 믿고, 제가 가고자 결심했던 그 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사실 원서접수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2) 멘탈 관리

저에게는 전반적인 로스쿨 입시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 비해 중요한 시험 및 입시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저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유명한 로스쿨 입시 커뮤니티에서의 스펙평가 혹은 합·불 스펙 공개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LEET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공부의 비중을 풀어봤던 문제를 복기하는 쪽으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로스쿨에 불합격할 때를 대비하여 또 다른 길(저의 경우 호주 워킹홀리데이였습니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인식시켰습니다. 즉,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각각 그 효과가 다른 내용이므로 스스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4. 끝으로

경찰 공무원의 길을 완전히 접고 로스쿨의 길을 걷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온 가족과 친·인척 분들께서 반대했습니다. 저의 목표에 대한 야유와 반대로 시끄러웠던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불러서 첫 학기 등록금을 도와줄 테니 공부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보라며 절 다독여주시는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비록 제 합격 소식은 듣지 못하고 소천하셨지만, 분명 그곳에서도 저의 합격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며,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을

기대하고 또한 응원해 주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부모님과 공장에서 야근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식대와 도서비를 도와준 동생, 학과 교수님, 스터디 그룹원을 포함한 저의 로스쿨 입시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여유 있게, 그러나 끝까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노필립

### 빠른 결정이 시작을 좌우한다.

이번 16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경험한 수험생으로서 합격 수기를 통해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른 결정이 시작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법시험논란과 변시합격률의 문제 등으로 다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향 평준화 되고 있는 이른바 ‘스펙’을 고려할 때, 빠른 결정과 준비가 앞으로의 로스쿨 입시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학부 전공이 경영학으로 법대가 없어진 뒤에 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고등학교 시절까지 꿈꾸었던 법조인의 길을 접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CPA를 준비하던 도중 우연히 접한 LEET 문제를 풀고 다시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법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15년 3월 CPA 1차 시험을 본 뒤 과감하게 로스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고시생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며 할 수 있는 것만.

15년 3월부터 로스쿨을 준비하기 시작한 저는 무조건 올해에 끝낸다는 각오를 먼저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LEET라는 시험의 특성은 점수의 향상이 시간과 공부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또한 이미 한 학기만을 남겨둔 이상 이른바 ‘학토릿’이라는 정량 요소에서 미리 준비를 요하는 학점은 고정 값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성요소는 단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각오가 준비기간에 쓸데없는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준비를 하며 주변의 많은 준비생들이 의미 없는 슬럼프를 종종 겪는 것을 봤습니다. LEET를 고시 준비하듯 대하며 로스쿨 준비를 고시처럼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과 압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준비도 또 하나의 대학원 준비라는 본질을 생각하며 여유를 가지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기간 동안 학원은 M학원의 마이클장 선생님의 추리논증 파이널 모의고사와 M학원의문철 선생님의 논술 전 과정을 다녔으며 대부분의 수험기간은 혼자서 준비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3월부터 논술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는 먼저 LEET에 대한 감각을 8월까지 최대한 민감하게 끌어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기출로 실전 테스트를 스스로 하고 30개 내외의 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언어이해의 비중을 30%, 20개 중 후반을 유지하는 추리논증의 비중을 70%로 잡고 하루에 20~30문제 정도를 풀었습니다. 책은 메가로스쿨에서 나온 '잘고른 250제'와 조호현의 'PSAT FOR LEET'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스테디나 오답노트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스테디의 경우는 홀로 준비했기에 사실 구하는 방법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문제접근법을 찾아내면 될 뿐이지 스테디를 통해서 다양한 준비생들의 풀이법을 공유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스테디가 맞는 분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꼼꼼한 오답노트는 정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3 언어과외를 할 시절 학생에게 늘 말하던 부분이 지금 내가 보는 지문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LEET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푸는 그 순간 이해를 못하는 지문은 절대 이해해서 풀 수 없는 지문입니다. 그러한 지문을 대할 땐 선지와 지문을 연결하며 답만 맞추는 데에 집중하고 오답 정리할 때 지문의 내용만 대략 이해해 보면 충분하지 굳이 꼼꼼하게 모든 세부내용을 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풀이에서도 한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해당 지문의 극히 일부인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 모의고사와 컨디션 관리

혼자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위치 파악 및 실전 경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문제를 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M학원에서 실시하는 전국모의고사와 그 학원의 각 캠퍼스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저렴한 비용이니 꼭 응시하여 표준점수로 나오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실전 경험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제가 유일하게 수강한 강의 역시 LEET 6주 전에 개강한 추리논증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였습니다. 언어이해는 친구의 문제를 얻어서 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민감하게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는 꼭 접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컨디션 관리는 일상생활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15년 8월까지 대외 활동을 하였기에 술자리도 적지 않았고 더욱이 1학기를 휴학하여서 생활리듬도 무질서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생께서 이러한 생활이 익숙하다면 굳이 생활리듬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분명 일리가 있으나 그게 힘들다면 오후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LEET 시험은 사실상 점심시간 이전에 끝나는 단거리 레이스이기에 한 호흡에 달려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생활 리듬 자체가 성적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면접 준비와 마무리

면접 준비는 스테디를 구성해서 준비했습니다. 면접에 있어서 스테디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면접관 입장이 돼 볼 수 있으며 면접자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에 꼭 스테디를 구성하여 모의 면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김중수의 250제'와 '황변의 Q로스쿨면접'을 이용하였는데 김중수 저는 스테디를 위한 용도로 좋으며 혼자 공부하기엔 단순한 주제와 지식의 나열로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황정현 저는 얇고 사고력을 자극하기에 적절하여 제가 면접장까지 들고 간 책입니다. 혼자 볼 땐 얇고 읽기 쉬운 황정현 저를 추천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많이 부족한 준비 기간과 스펙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여 수기를 쓰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입시에 진입하게 되면 고시생도 아니고 평범한 대학원 준비생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혼란을 느끼게 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때 저는 법조인이 된 뒤의 미래를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를 특별한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라는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돌이켜보면 고시생과는 달리 유난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러나 조용히 완주했던 것이 큰 슬럼프 없이 합격한 원인 같습니다. 로스쿨 입시 자체를 대단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이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LEET 파이널 모의고사를 수강하며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LEET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매일 문제 풀어 본 사람이 하루 8시간 하면서도 중간 중간 공부를 놓는 사람을 이기는 시험이다. 로스쿨 수험생이 유념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기가 아니기에 양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절실함, 간절함이라는 감정은 혼자 간직하시고 평소처럼 생활하되 완주하시면 희망하는 로스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1.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8기로 입학하게 된 이광민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합격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정량점수를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처럼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 내지는 참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제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하는 데 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지극히 주관적일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50%대의 비교적 낮은 리트점수를 받았기에 리트준비에 대하여는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추측건대 낮은 리트점수를 보완할만한 정성평가(자기소개서평가, 면접평가)점수를 받은 것 같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 2. 자기소개서 작성.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로스쿨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너무나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에 비싼 가격이었지만, 학원 강의에 의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인드맵 형식으로 자신의 일생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법조인에 맞게 경험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경험들 간에 내용적으로 부족하거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강사님이 보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초안을 만들어 강사님의 첨삭을 받으며 보완 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원 강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도 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각 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를 친구, 선배, 교수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피드백이 오갔고 자기소개서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지원하는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높았던 정량점수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예비번호를 받고 불합격하였습니다. 아마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원 강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맞춰진 경험들을 나열한 자기소개서에는 진정성이나 진실성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또 첨삭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렴한 결과, 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산만한 자기소개서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과장된 부분이나 인위적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또 단점은 솔직하게, 장점은 겸손하게 드러내어 읽는 사람이 편안히 솔직한 이야기를 본다는 느낌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완성되고 매일 같이 자기소개서를 소리 내어 한 자 한 자 읽고 어색하거나 오타가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수정한 후, 지도교수님께 보여드리고 함께 보완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으면 초시 때와 같이 산만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아 지도교수님께만 조언을 들었습니다.

### 3. 면접 준비

초시 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리트점수가 공개되고 바로 스터디를 모집하였습니다. 제가 모집한 스터디는 김OO 250제를 각자 정해진 분량대로 공부해 와서 토론을 하였고, 그 해에 있었던 시사이슈 리스트를 만들고 각자 주제를 맡아 정리해 와서 발표하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면접이 가까워 오자, 5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면접직전까지 반복해서 보았고, 추가적으로 그 해 1월부터 11월까지 방영된 썰O, 100분 OO, 밤샘OO, 그것이 알고 OO 등을 2번 반복 시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면접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실전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모의면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 실전연습을 위한 스터디를 두 개 더 했습니다. 그렇게 총 세 개의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일이 다가오자 각 스터디마다 주5일 모였고, 평일에는 스터디 시간이 하루에 총 10~11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모르는 분들과 오랜 시간 연습을 한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하여 본인이 아는 주제가 나오거나 면접관이 질문(반론)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모습 또한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지성질문의 답변이 훌륭하여도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치러지는 면접의 특성상, 면접장에서 인간적인 모습도 중요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마다 면접관과 인간적인 대화를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면접관과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면, 면접관의 질문이 반론이 되고 본인도 모르게 재반론을 하면서 흥분을 하거나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최대한 예의바르게 어른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였고, 이것이 긴

장을 풀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4. 끝내는 말

7전 8기에 비하면 반도 못 미치는 도전이었지만, 로스쿨 입학 을 위하여 보냈던 시간은 힘에 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난 후,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 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로스쿨 입시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였습니 다. 하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동생과 언제 나 못한 자식걱정에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시는 부모님,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준 여자 친구와 친구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후 중학교 체육관 청소, 보습학원 시간 강사, 명품관 가드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학하신 선배님들을 찾아다니며 학교별 정보를 수집하여 입시에 매진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孟子)의 고자장(告子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 더 큰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큰일을 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 법조인 지망 동기, 합격소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형웅

두 번의 시도 끝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법이란 것이 영세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특히 법을 잘 모름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중소기업 을 위한 법조인의 필요성을 느껴 중소기업 법무전문 변호사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망 동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돈과 명예를 얻고자 법조인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시기별, 과목별, LEET 학습법

최근에는 학부 1학년부터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해 학점과 경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입학생 스펙이 상향평준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관리에서 몇 가지 팁이 있다면 재수강·학점포기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공충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반영요소 중 학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재학시절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대외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공모전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경력관리에 중요한 것은 진로목표와의 일관성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무전문 변호사라는 목표를 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연관성이 있는 대외활동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인영어의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시험을 보아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LEET 시험이 다가올 때 즈음이면 공인영어를 학습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3학년 마지막 학기 겨울방학에 공인영어성적 취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LEET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읽으면서 학문적 저변을 늘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법학과 철학, 논리학의 경우에는 LEET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LEET 수험 전에 어느 정도 접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학년까지 학점관리와 경력관리, 공인영어성적 취득을 마무리 한 후 4학년부서는 LEET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LEET의 세 과목은 형식은 다를지라도 ‘법학적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테스트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접하며 학문적 배경지식을 늘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지문과 배경지식을 종합하여 풀어내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LEET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유형과 시간제함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LEET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습니다. 문제유형을 파악한다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접근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적은 수의 문제를 풀지언정 제한시간 내에 푸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였습니다. 논술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유형별 답안작성방식을 정리하고,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초시에서의 실패는 시뮬레이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시에서 언어이해영역 시간배분 실수로 인해 두 지문 가량을 풀지 못했습니다. 재시 준비 1년 동안은 시뮬레이션 연습에 치중하였고 초시에 비해 15점 가량 향상된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방법

자기소개서와 인성면접은 법조인으로써의 확고한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한 일관된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법조인의 모습을 정한 후에 그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는 정성요소에서 진정성이라는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첨삭을 20회 가량 반복했습니다. 초안 작성 후 시간을 두고 살펴 보면서 어색한 문장을 고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 법무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했던 노력과 목표를 자기소개서를 통해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성면접 역시 일관성과 진실성을 물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학부시절 들었던 수업과 경력활동, 수험준비기간 중 했던 일 등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는 것들

을 주로 질문하였습니다.

지성면접 준비는 LEET 준비와 연관성이 큼니다. LEET 준비를 하며 쌓아왔던 배경지식과 논리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면접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면접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면접 스터디에서 실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면접장에서의 긴장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행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 입시슬럼프 극복 노하우

제가 겪었던 입시 슬럼프는 초시에 실패를 겪었을 때였습니다. 실패를 겪고 나니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좌절감이 들었고 어떤 부분을 메꿔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변의 입시 준비 동기들을 만나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점을 하나씩 찾아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다방면으로 다시 접근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며 에너지를 재충전했던 것이 슬럼프 극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나의 합격에 가장 중요했던 요소

제 합격에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LEET 성적과 면접이었습니다. 공인영어성적은 과급력이 작으며, 학점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노력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LEET 고득점을 노리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법학적성이 있음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인마다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콤합니다.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합격자 김선규입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I. 수험생활

(1) 전반적 수험생활

3.6/4.3이라는 저의 학점은 서강대학교 내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위 ‘괜찮은’ 학점에 속했지만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학점이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학점을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기에 저는 LEET에서 고득점을 하여 저만의 강점을 살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월부터 신촌에서 스테디를 구성하여 LEET 시험 대비를 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LEET 추리논증 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실제 LEET 시험에서 135점을 받아 모 법전원에 7기로 입학하신 선배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TOEIC 점수를 만들기 위해 LEET준비와 TOEIC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문제는 영문과에 재학 중인 친구에게 질문하였고, LC준비를 위해 리스닝 파일을 길 걷는 시간 등 남은 시간에 틈틈이 들었습니다. LEET 시험이 끝난 뒤에는 3월에 구성된 스테디 구성원들 그대로 면접을 대비하는 스테디를 구성하여 면접 대비를 하며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서로 읽고 첨삭해주며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2)LEET

1)언어이해

언어이해 영역은 어차피 지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기 보다는 독해 속도와 지문 친화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전감각을 기르기 위해 시간을 재 1주일에 한 번 실전처럼 문제를 풀었고 그 외에는 배경지식이 부족해 읽는데 오래 걸렸던 지문들의 독해 속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과학에 흥미가 많았고, 경제학과 역사학을 전공하였던 저는 과학, 경제학 등의 지문을 빠르게 이해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없던 철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지문은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위해 예술과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책을 찾는 것도 어려웠을 뿐더러 제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닌 지문 친화력을 기를 정도의 넓고 얇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저는 네이버캐스트의 철학의 숲 등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었습니다. 이후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하는 철학과 예술 지문을 읽는 속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추리논증

언어이해와는 달리 추리논증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PSAT for LEET 라는 문제집을 주로 보았고, 학원 강사들이 제작한 하프 모의고사 문제들도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에 앞부분의 언어추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남은 시간을 논리게임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3)논술

솔직히 LEET 논술은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문제만 인쇄하여 풀어보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분량을 맞추기 어렵지는 않은지 정도만 체크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 변별력이 높지 않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논술의 비중이 극히 낮아 논술을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자기소개서

대외활동 경험도 전무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전혀 없었던 저는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그런 것들 보다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7기 선배님의 조언에 따라, LEET 점수와 수강했던 법학 과목들의 성적을 강조하며 저의 법학적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초고를 완성하고는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 선생님, 논술 과외를 하는 친구, 로스쿨에 다니는 선배님들, 스테디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글쓰기센터 선생님과 논술 과외를 하는 친구는 주로 문법적인 부분이나 적절한 어휘 등 형식적인

부분을 바로잡아 주었고, 스터디 구성원들과 로스쿨에 다니는 선배님들은 좀 더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외활동, 봉사활동 경험이 없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4) 면접

면접 준비 교재로는 김종수 저 '로스쿨 면접 250제' 라는 책을 사용했습니다. 스터디는 각 사람이 해당 쟁점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 때가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집에 돌아와 토론 내용을 복기하며 당시에 하지 못한 반론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최초 발언 시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논거를 제시하여 면접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마다 면접 시 메모지를 참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지만 제가 준비한 학교는 모두 메모지를 참고할 수 있어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용이했습니다.

### III. 마치며

로스쿨 입시에서는 단순한 정량 점수 보다 대학 4년간의 삶이 어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정량점수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 자신만의 강점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면접 대비를 충실히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 자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관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은현정

돌이켜 보면 제게 맞는 입학전략을 잘 세웠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입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공부 그 자체보다도 매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업무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에 가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다니던 회사에 아예 내놓고 상담을 요청 드렸더니, 다행히도 다들 응원해 주시면서 편의를 많이 보아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업무 강도가 줄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퇴근할 때 눈치 안 보고 일어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성과였지요.

로스쿨 입학 전략을 세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학점이 썩 좋지 않았고, 토익은 기준선을 맞추는 정도였습니다. 논술 실력 같은 것은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LEET 고득점 및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정한 입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퇴근하고 독서실에 도착해서 저녁 도시락을 먹고 나면 정확히 8시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고정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입학을 준비하면서 확보할 수 있었던 하루 4시간은 오로지 LEET에 온전히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정량평가라 할 수 있는 1단계 전형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LEET점수와 영어성적, 그리고 GPA만을 가지고 합격자를 선정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LEET논술 및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사이지만,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불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부 시절에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학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량평가에 있어 불리한 점을 안고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LEET 점수를 얻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자기소개서에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이로 인하여 얻은 교훈 등을 충실히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LEET와 논술, 자기소개서 모두 글을 읽어내는 능력과 글을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저는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시간 중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며 독해 속도와 논리력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독서실에서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

으며, 약하다고 생각되는 추리논증 부분은 추가로 시중의 책을 한 권 정하여 여러 번 반복하며 보강했습니다.

LEET 시험 직후부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한 글을 남들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리뷰를 받고 글을 수정하였던 덕분에 그래도 남들 보기 덜 부끄러운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내가 얼마만큼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큰지, 내가 얼마만큼 실력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회사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사례로 삼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곤란한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정독하며 내용을 숙지한 다음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예상되는 질문을 뽑고 그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소개서 리뷰를 부탁한 지인들에게 예상문제를 청하였더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정말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 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사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물을 것에 대비하여 신문과 뉴스를 보고 들으며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3분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법학사임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신 모든 교수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바람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로스쿨 입학 준비를 하면서 돌아켜보면,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정한 시간에 퇴근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일 뿐더러, 어떤 학교에 원서를 넣어야 하는지 정하지 못 하고 방향하던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많은 은사님들이 계셨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 지인들, 제 노력을 보아 주시고 제게 합격을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큰 꿈을 꿀 수 있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이제까지 맺어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감사하며 겸손할 줄 안다면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환경을 생각하는 법학도의 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정들

저는 학부에서 제1전공으로 보건환경융합과학(구 환경보건학)을, 제2전공으로 환경생태공학 공부를 이학도입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위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이 많아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환경보건학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환경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야 환경문제를 더욱 거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중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공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 실험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법과 정책의 영역을 알아야 현실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학년 1학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정책학>을 수강하며 교수님들께 진로의 방향에 대해 많이 여쭙보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출신 전공을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본격적으로 리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공계열 학생이었기에 로스쿨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사설학원의 도움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개강 후 뽕뽕한 학사일정과 리트 준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졸업과 동시에 바로 로스쿨에 진학할 생각이었으나 일단은 본 전공에 충실하기로 마음먹고 자기소개서에도 그 점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2014년 11월부터 리트 준비를 다시 시작하면서 법률연맹,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재판 방청을 틈나는 대로 다녔습니다. 법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았지만, 그림자 배심원 등을 통해 느낀점과 경험한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점수를 미리 원하는 만큼 올려놓았기 때문에 리트 전 8개월은 오롯이 시험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어서 남들보다 뒤쳐져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에 사설학원 종합반을 다니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세 과목을 적절히 병행하며 공부했습니다. 학원에서 짜 준 그룹 스터디를 통해 일주일에 2~3번 정도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의가 개인의 실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나, 혼자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던 저에게는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게 해 주는 기반이었습니다.

출신 학부가 특이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면접에 더욱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서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전공 공부에 충실하면서 로스쿨 진학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된 과정을 상세히 풀었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최종합격을 하기까지는 공을 많이 들인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출신 학부가 특이할수록 학부 관련 질문이 나오기 쉽다는 점을 숙지하고 들어가, 전공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막히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진학 준비는 따로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그닥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 과정입니다. 이 때 스스로를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의 단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무사히 마라톤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 로스쿨 입시, 공부하는 습관의 시작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김대현

### 들어가며

20살, 학부에 입학할 때부터 저의 꿈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었습니다. 이는 좋은 정치는 좋은 입법에서 시작되고, 이는 전문적인 법학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꿈은 군을 전역할 무렵까지 매우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넌 무엇을 준비하니?”라고 물었을 때 “법조인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답변거리에 지나지 않았지요. 복학 후 학업과 학생회활동을 병행하다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어느덧 리트를 1년 앞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 때까지 전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어성적은 560점이었고, 리트 문제는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학점 평점이 낮지는 않았고, 계절학기를 몇 과목 수강하여 7학기 조기졸업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리트를 준비하는 4학년 1학기는 휴학상태로 입시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 영어(TOEIC) 공부하기

영어를 기초가 잡힌 분들과는 달리, 저는 고교 수험생시절부터 영어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습니다. 모의고사 2등급을 맞은 것이 5번이 채 안 되니까요. 보통 part1과 part5의 첫 페이지는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많이 틀렸습니다. 게다가 리트 1년 2개월 정도를 남기고 3학년 여름방학부터 영어를 시작했으니 기초를 다시 세울 시간적 여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영어학습의 주안점은 첫째,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늘리고, 둘째, 쉬운 문제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완벽하게 공략하되, 고난이도 문법과 신유형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여 하루에 3강~4강을 학습하고, 1시간정도 복습을 하여 하루에 순수학습시간 5시간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단, 월화수목금 빼먹지 않고 학부 여름방학동안 매일 꾸준히 학습하였습니다. 별도의 문법학습이나 단어장을 통한 암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의시간에 제시된 모르는 단어는 따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중에 나온 암기장을 통한 암기보다 문제 지문에 나온 단어 혹은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지문 내용이 다시 학습되며 단어 뜻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하다 보니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며칠 후에



단어를 잊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문에 다시 동일한 단어가 출제되어 저절로 반복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름방학 2달 반을 꾸준히 하고 나니 점수가 560점에서 815점까지 단박에 올랐습니다. 특히 LC의 점수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시험 당시에 영어가 머릿속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풀었던 지문내용이 시험장에 나오고, 조건반사적으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 주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다시 시작되니 학과공부와 학생회 감사, 선거관리 활동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영어공부는 3달 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4학년이 되는 12월의 영어점수는 780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영어공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때 부터는 실전연습을 중심으로 하되,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점수상승이 뚜렷했던 LC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고 평가되지만, 실전유형과는 가장 비슷한 토익 공식기출문제집을 구입하여 완전마스터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풀었고, 틀린 문제에 대한 LC음원만 모아 6시간짜리 분량을 만들어 틈나는 대로 들었습니다. 특히 3월-4월에 리트학원을 다닐 때 30분 통학시간동안 지하철에서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라디오처럼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풀었던 기억을 회상하고 대본내용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렸습니다. 나중에는 노래 가사를 외우듯 6시간 분량의 LC 지문 및 문제내용을 거의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LC를 극한으로 파다보니 영문식 문장구조가 머릿속에 경험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영문 독해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해석이 점차 매끄러워지며 RC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외의 RC공부는 시중 문제집을 활용하여 문장의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해석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최종대비로는 최대한 자주 정기시험 및 모의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강의 1년 정기권에 패키지로 붙어있던 모의고사이용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매달 토익 정기시험1-2회와 사설모의고사 1회, 합 3회를 무조건 응시하였습니다. 설령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시험을 봤습니다. 5월 8일에 극적으로 900을 넘겼습니다. 이때부터는 과감히 영어점수에 미련을 버리고 리트에 올인을 시작하였습니다.

## 리트학습

리트준비는 크게 전반기에는 토론식 스터디를 중심으로, 후반기는 실전연습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리트준비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리트 시작이 다소 늦었다고 생각했기에 과감히 언어, 추리 모두 6월까지 학원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터디 두 팀을 꾸려 병행했습니다. 스터디 1팀은 당일 학원수업을 복습함과 동시에 PSAT문제 중에서 리트와 유사한 문제를 골라 푸는 스터디였고, 스터디 2팀은 기출문제를 숙제로 풀어오고 해설을 같이 해보는 스터디였습니다.

학습시간은 주중에 약 7~8시간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주말은 일요일 스터디 외에는 쉬었습니다. 하루 일과구성은 오전에는 학원 강의를, 오후에는 스터디나 자습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학습시간이 다소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 4개월을 타율 없이 일관되게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리트공부 초기에는 자습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아 일찍 집에 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때 억지로 공부를 하기 보다는 공부하는 아님지만 관련된 다른 것들을 하며 반드시 정해진 학습시간을 채웠습니다. 예를 들면, 기출문제의 출처가 되는 판결문의 전문을 읽는다거나, 다양한 사람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좋은 내용이 있으면 메모하여 학습방법에 참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이상을 하고 나니, 습관이 굳어져 공부의 지루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월이 되니 09년부터의 기출문제는 2번 정도 풀게 되었고, 리트와 연관된 PSAT문제들도 최소 1번 이상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모두 경험하셨듯이, 기출을 2회~3회 이상 반복하여 풀더라도 틀렸던 문제는 같은 오답으로 다시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정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여 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만의 시험지를 직접 제작하여 다시 풀어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만의 시험지는 PDF 프로그램(Acrobat Reader)의 “스냅샷 찍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이전의 합격수기를 참고함).

기출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는 PDF파일이므로, PDF를 열고 표시크기를 15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스냅샷으로 원하는 문제만 “잘라내기” 하여 한글에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지는 테마를 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하여 틀리는 문항을 35문항 선정하여 “기출 고난도 실전시험지”를 만들거나, 법학 소재의 지문만을 발췌하여 “법학 논증 시험지”를, 기호논리학 문제만 발췌

하여 “기호논리 시험지”를 만드는 등 다양한 종류의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시험을 치기 직전까지 계속 사용하였고, 특히 기출문제를 5회 이상 반복하는 시점에서 문제를 덜 기억나게 해주는 기능을 해 주었습니다.

8월부터는 실전상황에 최대한 적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매주 2회씩 총 7회에 걸쳐 실전과 같은 시간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50분까지 언어와 추리를 풀었습니다. 문제의 소스는 고난이도 기출인 11년, 13년 문제와 직전기출인 15년, 그리고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했습니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지역 시험장과 가장 유사한 책걸상 일체형의자를 구하여 거기 앉아 문제를 풀었고, 모의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도 통제하였습니다. 2회의 시험은 논술기출을 활용하여 논술고사까지 포함한 모의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험2일 전인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모의시험을 진행하였고, 토요일에 자습과 휴식을 적절히 안배한 뒤, 일요일 실전 시험에 임했습니다.

### 면접 준비

다른 수험생에 비하여 저는 면접 준비를 상당히 늦게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재학생 신분으로 학업과 리트를 병행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았기에, 리트가 끝나고는 무언가를 다시 준비할 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9월까지의 학점관리와 동시에 놀기 바빴고, 실질적인 면접 준비는 10월 초가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탓에, 첫 스터디모임부터 면접고사까지 약 9회 정도의 모임밖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스터디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였습니다.

시중 교재에서 제시한 250주제의 면접주제 중 가장 중요한 15가지 주제와 최신사례 5가지 등 총 20주제를 선정하여 이 부분만 스터디 주제로 활용하였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별도의 주제에 대한 조사 및 이론학습 없이 100% 모의면접 및 강평이었습니다. 스터디원이 5명이었으므로 돌아가며 1명이 면접자, 4명이 심사위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역점을 둔 것은 면접 도중의 자세교정과 반론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세교정을 위해 모든 모의면접은 동영상촬영을 하였고, 스터디 후 자신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교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질문에 대한 대비는 모의면접 때 심사위원 역할이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4대 1 토론을 한 달 가량 반복적으로 진행하니, 열세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담대함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인성 및 사회활동 이력의 경우 저를 비롯한 모든 스터디원이 모두 20대 중반의 학부 재학생이었으므로, 다른 수험생에 비하여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답변기조를

특화분야와 전문성이 아닌 성실성으로 잡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과거의 이력보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부성적 및 대외활동 관련 질문은, 성적이 높지는 않지만 학생회 활동 및 수험준비와 모두 병행한 결과임을 강조하여 답변기조인 성실성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비법은 꾸준함

사실 제가 로스쿨에 합격한 가장 큰 이유는 운이었습니다. 같은 학부에 로스쿨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같이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의 시작과 끝을 이 친구들과 함께했고, 대부분이 같은 로스쿨에 진학하여 함께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부 교수님께서도 수시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자기소개서를 직접 검토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아무리 외적인 여건이 좋고 운이 좋아도 스스로 필요 공부량을 채우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는 언제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자는 리트, 영어 등의 로스쿨 입시는 법학공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로스쿨 입시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습관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모든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로스쿨 입시는 앞으로 법학공부에 필요한 꾸준한 학습습관과 논리적 사고능력을 훈련하는 기회였습니다. 영어공부를 시작할 때는 5시간에서 시작하여, 리트학습과 리트 실전 시험을 대비할 때 까지 공부시간을 점차 늘려 나갔으니까요. 합격생 모두 제가 했던 것 이상의 학습량을 채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습관을 처음 들일 때는 매우 힘들고 지루할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려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공부가 정말 안 될 때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것을 하면서 책상에 앉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모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동기 분들, 모두 힘냅시다.

##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이원경

작년 겨울, 여러 합격수기를 읽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운이 좋아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또 우연히 기회가 되어 합격수기를 작성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 진학해 원하던 대로 법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학도로 학부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양의 전공 수업을 듣고, 모의재판에도 참여하며 법조인에 대한 열망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가게 되었는데, 다양한 국적과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여러 분야에 대해 토론하면서 법학이 사용되는 분야가 대단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공의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익힌 경험은 자연스럽게 법학전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그들이 궁금해 하던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며 설명해주고 또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가 되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LEET 시험 준비였습니다. LEET는 4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늦게 준비를 시작했다는 조금함이 있어서 겨울방학 동안 학원을 다니며 LEET의 기본기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책 읽기를 좋아했고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이해의 긴 지문을 읽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이 없는 것과 문제를 잘 푸는 것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둘 다 문제를 빨리 읽어서 풀기 보다는 한 문제라도 정확히 푸는 것이 점수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초반에 준비를 할 때는 시간을 여유롭게 정해놓고 정확히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시간을 단축시켜가며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추리논증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무조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맞추는 문제보다 실수로 틀리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문제 수를 정

해놓고 최대한 정확히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 수 역시 처음보다 5문제 씩 늘려가며 정확성을 늘리면서 동시에 정답개수까지 늘려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추리논증 공부를 시작할 때 수리추리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준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추리도 어려웠지만 논증 부분에서 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증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전체와 결론을 구분하며 정리를 했습니다. 수리추리는 PSAT 기출문제를 통해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서 LEET 시험에서는 긴장을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학원을 다니며 LEET에만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었지만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학원에 다닐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LEET를 계속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점이 반영되는 마지막 학기인 만큼 학점관리도 해야 했고 토익도 준비를 좀 더 해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LEET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방학 때처럼 LEET에 집중하기 보다는 비는 시간 틈틈이 필독도서 목록에 있는 책을 읽거나 논술을 대비해 한 문제씩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LEET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푸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시간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보고 OMR카드에 마킹까지 하며 최대한 실제 시험장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험시간에 맞추어 문제를 풀다보니 긴장감도 생기고 방학이라 자칫 게을러 질 수 있었던 생활패턴을 맞추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LEET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LEET를 공부하는 동안은 실력이 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고,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점수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다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고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해보면 이때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과 대답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가 안 될 때는 계속 문제를 붙잡고 있기 보다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 항상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모의고사 점수가 형편없이 나온 경우에도 실제 시험을 망친 것이 아님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 시험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LEET 시험을 끝내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다른 학생들보다

LEET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면 어찌지'하는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긴 했지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합격에 가까이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도움을 통해 제가 어떤 법조인이 되길 희망하는지, 제가 했던 활동들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교정을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한자리에 앉아서 쓸 때도 있었지만 이동시간이나 공강 시간 틈틈이 제가 했던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짧은 글을 여러 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취합해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하나의 글로 모아 자기소개서를 다듬어갔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기 까지 여러 번 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장을 다듬고 표현하고 싶은 바를 간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퇴고하는 과정까지 거친 뒤에는 다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면접 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물어보셔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대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를 토대로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같은 내용의 글을 수십 번 읽다 보니 틀에 갇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과 친구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질문을 받다가 공대, 자연대 친구들처럼 아예 반대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과 친구들보다 오히려 법과는 반대되는 분야를 배우는 친구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며 질문을 해주니 생각의 폭도 좀 더 넓어지고 긴장감도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로스쿨 면접에서 다루었던 주제들로 구성된 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책의 구성이 여러 주제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는 책을 그대로 읽기 보다는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연습장에 정리해 본 다음 책을 읽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처음 접하게 된 주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책의 개요부분을 통해 간단한 배경지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다면 책을 천천히 읽어보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했고, 면접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읽어볼 수 없을뿐더러 결국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야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역시 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면접장 안에 계신 면접관님들도 결국은 같은 교수님들이라는 생각에 학과 교수님들과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면접장 안에 있다고 가정하며 면접 당일 날 최대한 긴장이 덜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기 자신만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로 재학 중인 오지연입니다. 글로써라도 만나게 된 분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다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많은 분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입학 및 생활 수기를 쓰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수험생생활이 힘들 때, 합격수기를 읽으며 저의 목표를 단단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혹시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 그 과정에 대하여 저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 2.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

사실 처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유년시절에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실업계고 의상과 및 패션디자인 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공부는 하면 할수록 슬럼프에 빠지고, 오히려 손해사정사이신 아버지가 가끔 본인이 수임하신 보험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고려하여 예체능 대신 보험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사건들은 보험회사·가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측(이하 '피보험자측')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피보험자 측을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해사정사 분들이 수임하는 사건 중에서 산업재해 사건이 많은 것을 보고 보험과 노동을 함께 전문분야로 한다면 연계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할 경우 최종적인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한 뒤, 보험과 노동을 주 분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에, 당장 자격증을 따서 위급상황이 생기면 제가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분야를 개

발하는 것보다, 보험이나 노동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보다 체계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학년 때 손해사정사를, 3-4학년 때 공인노무사를 따고 여건이 되는대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하겠다는 단기·장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채손해사정사가 없었으므로 3종 대인을 준비하게 되었고, 2학년 때 에 3종 대인 손해사정사(2010년, 33회)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 공인노무사(2012년, 21기)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때 까지 생긴 학자금 대출,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까지 드는 비용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욕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교에 복학해서 모의재판 등의 실무수업 및 판례수업을 듣는 것도 즐거웠고, 모의재판대회에 나가서 변론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은 스스로 생기가 느껴질 정도로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면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평생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측을 대리하는 손해사정사의 경우에,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의권 및 소송수행권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송수행권이 없는 자격사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변호사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자 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를 준비할 때 1년 동안 학원비를 대주신 것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학원비가 비싼 사법고시를 몇 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제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만약 사법고시 폐지 시 까지 합격하지 못하면 준비기간에 사용한 비용을 다 날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변호사에 다시는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보다 높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현재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부 때 등록금과 유사한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으며, 그 등록금도 일부는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3.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준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성적·학점·리트 성적 등의 정량과 그 외

대의활동·수상경력·자격증 등의 정성요소가 필요합니다. 정량요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점은 4학년 동안에 좋은 성적을 받아 최대한으로 올렸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토익과 리트를 준비했습니다. 5월까지는 토익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리트에만 집중했습니다. 토익과 리트는 기본 인터넷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리트를 너무 늦게 시작하여 준비가 부족하였던 점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리트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면접 스테디를 준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보고 수정해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는 교수님, 스테디원, 로스쿨에 합격하신 선배님들께 보여드리고 조언을 구해 수정하는 과정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 반복하였습니다. 면접 스테디의 경우에는 9월부터 면접직전까지 약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2개 정도의 스테디를 하였습니다. 한 스테디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면접교재에 있는 주제들로, 다른 스테디는 시사이슈를 정리하여 토론 또는 모의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면접직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리트점수가 낮아 정성요소에서 가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입법공청회도 다니고, 강좌도 수강하고, 법원 참여프로그램, 모의재판대회, 공모전 등에 참가하여 수료증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 수업태도를 보여드리고자 1등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부 교수님들께 과목 석차를 확인받아 제출하고 모범답안으로 뽑혔던 경우에도 동의를 얻어 사본 및 확인서등을 입시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입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정량점수 획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시판이나 선배들에게 조언도 받고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가 리트 성적이 낮음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시전형에 지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4. 결어

제 입학점수가 뛰어난 편도 아니고, 아직 변호사 시험을 보지도 않은 재학생일 뿐이어서 이러한 수기를 쓰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사랑하는 7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계속해서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룬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정이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연히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결코 막연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후,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 미리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2017년도에는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되고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법률서비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변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입취지에 이끌려 저의 진로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지금, 지난 몇 년 간 상상해오던 것이 현실이 되어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 1~2월(독서를 통해 배경지식 획득)

##### 언어이해

대학교 4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LEET대비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 자료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하고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 보듯이 시간을 재고 풀 후, 다시 한 문제씩 꼼꼼히 살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나오는 지문을 읽을 때 이해력이 떨어져서 몇 번이고 지문을 다시 읽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대학교 시절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 좋아하는 주제나 비슷한 종류의 책만 읽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넓은 분야의 배경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관심이 많았던 철학, 예술 관련 배경지식은 갖추고 있었던 반면에 과학, 기술, 정치, 경제 관련 배경지식은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 정치, 경제 관련 지문을 접하면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 읽어나가지 못했습니다.

LEET시험까지 8개월 정도가 남아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과 더불어서 독서를 하였습니다. 책을 선택 할 때는 2013년 초에 참석한 메가로스쿨 입시설명회에서 나눠준 추천도서목록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네이버캐스트 이용하여 과학, 경제학에 관련된 주제로

쓴 여러 글을 읽으며 배경지식을 넓혀 갔습니다.

추천도서에서 있던 글이 실제로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배경지식이 넓어지고 몇 가지 단어, 개념들에 익숙해진 것만으로도 읽는 속도도 향상되고, 문제 푸는데 자신감이 생겨서 정답률도 높아졌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 틈틈이 폭넓은 독서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 추리논증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운이 좋게도 스티븐 바커 저, 『논리학의 기초』를 번역하신 최세만, 이재희 교수님께 직접 논리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논리학의 기초가 잘 잡혀 있어서인지 추리논증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논리학의 기초』를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꾸준히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우의 추리논증』으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공부해 나갔고, 『조성우의 추리논증』의 앞부분에 쓰여 있듯, LEET기출문제, PSAT기출문제를 매일 일정량 꾸준히 풀며 문제 푸는 감각을 잃지 않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 3~6월(오답노트를 통한 기출문제 분석)

#### 언어이해&추리논증

저의 공부 자료는 오로지 '기출문제'였습니다. 7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8월 17일 LEET시험을 대비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전에 완벽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한 후, 7월 달에 간편하게 보면서 복습 할 수 있는 나만의 해설지를 만들기로 생각했었습니다.

메가고시적성연구소에서 발행한 기출문제집을 참조하여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추리논증은 '법적 추론 및 논증', '분석 및 재구성', '판단 및 평가', '비판 및 반론', '수리추리', '논리게임', '논리(언어)추리'로 총 일곱 권의 노트를 만들어 문제를 오리고 붙인 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배우고 스스로 터득한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해설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기출문제 해설집을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기출문제 유형별 특성, 출제자의 의도, 지문과 문제, 답지의 구성,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3~6월까지 대략 네 달 동안 주말에는 시간을 재고 실제 시험처럼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까지 치르고, 주중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설지를 만들며 공부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 7~8월(실전훈련)

LEET시험이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을 무렵부터 매일 매일이 LEET당일 인 것처럼 시험장의 모습을 떠올리고 펜을 쥐고 시험지를 넘기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해나가면서 다시금 기출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당일처럼 문제를 풀고 나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때, 6월달 까지 만들어놓은 저만의 해설지는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느끼게 함으로써 저의 자신감을 키워주었습니다.

시험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 초초해지고 공부에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볼 것이다.'라는 마음을 확실히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동안 자신이 공부한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부한 흔적이 뚜렷하게 시각적으로도 보인다면 불안한 마음을 다시 잡게 해주는 좋은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진학의 동기', '학업계획', '사회경력' 등의 각 란을 채울 때 서로 연결이 되게 하자는 것"과 "비법학사에게 법조인이 되기 위해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각오가 단단히 되어있다."는 것을 모든 내용 속에 잘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김종수 저 『로스쿨면접 핵심250주제』를 통해 중요주제들을 익혔고, LEET시험이 끝난 후 신문과 사설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현재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여서 자기 전에 일기를 쓰듯 머릿속에 남아있는 만큼의 정보를 정리해가며 글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가로스쿨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면접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다시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기출문제를 접했을 때는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면접당일에 문제를 받아보니 근래에 신문에서 접했던 주제들이 나와서 그다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돌이켜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은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너무 '이념적, 이상적'인 답변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legal mind'를 지니고 있음을 면접관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면접을 준비할 때에 법학적, 제도적인 실질적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의 슬럼프 극복 방법은 그 동안 공부해온 흔적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다 잘 될 거야!', '붙을꺼야!'라고 되뇌는 것이었습니다.

합격생들에 비해서 공인영어성적은 낮았고 리트성적은 높았습니다. 그 외에 면접과 논술점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학시절 4년간 철학을 공부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합격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점수도 합격권에 들 수 있었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제 생각을 논점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당시 면접관께서 '공인영어점수가 낮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도 공인영어 점수가 낮은 것이 아쉬운 점이고, 학업계획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해 리트 공부와 병행하여 준비하다보니 점수를 높이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좋은 점만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공인영어 점수가 부족하게 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법학 공부에 있어서는 탄탄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말로 저를 포장하려 들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저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완벽한 인재가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을 충실이 수행하여서 완벽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 점을 잘 보여준 것이 저의 합격에 가장 중요했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 출신으로 학부시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을 보며 의지를 다졌고, 고향이 충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원서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과 자신감, 로스쿨 3년간의 학업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 들어가며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로스쿨 생활에 대해 글을 작성해봅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학내생활, 대외활동, 학업의 세 가지로 나누어 작성하겠습니다.

## 1. 학내생활

### (1) 동아리, 학회

로스쿨의 생활은 학부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동아리와 학회가 있고, 로스쿨 졸업 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차원에서 학회활동이 특히 활발한 편입니다. 다만, 동아리는 스포츠동아리를 제외하고 그 외의 취미동아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 (2) 인간관계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는 성적경쟁으로 인간관계가 건조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외대의 경우 정원이 적어서인지 서로들 조심하는 분위기라 큰 트러블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내일도 모르는 것이니 사회진출 이후까지 생각하시고 가급적 뽀쪽한 인간관계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대외활동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과 각종 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이 부분은 로스쿨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수상 실적 등이 진로선택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원, 검찰, 로펌,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마냥 공부만 하는 것보다 방학을 이용하여 경험을 쌓으면서 목표의식을 성숙시킬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학업

### (1) 입학 전



비법대생분들이라면 입학 전에 민법 정도는 한 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법과목이 모두 그렇지만 민법은 특히나 양이 방대하고 난해합니다. 다만, 입학 전에 열정과 체력을 모두 쏟아 붓는 것은 자제해야하므로 법률용어들에 친숙해지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볼 정도만 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대생분들이라면 입학 전에 꼭 쉬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 중 학부공부를 충실히 하셨다면 이 시기에 쉬시면서 의지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입학 후

입학 후 본격적인 로스쿨 생활이 시작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7법에 선택법, 기록들까지 공부하기엔 턱 없이 적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 변호사시험을 칠 때 까지 상당한 정신적 피로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Tip을 드리자면 ① 현재 학기에, 지금 듣는 수업시간이 해당과목을 가장 자세히, 꼼꼼히,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겠으나 2학년 1학기까지 7법이 대충 마무리되고 2학년 2학기부터는 기록을 공부하고 3학년으로 진급합니다. 3학년부턴 본격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게 되는데 1학년 1학기에 민법총칙을 공부한다면 3학년이 되어서야 다시 민법총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② 수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변호사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분들은 신림동 강사분들이 아니고 눈앞에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입니다. 주말이나 남은 시간에 따로 학원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학기 중에는 보통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③ 학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점과 실력이 꼭 비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학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진로는 공직이고, 변호사로 진출하실 생각이라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점경쟁이 과열되면 학내 분위기도 좋지 않게 되고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④ 지금 듣는 수업이 1,000만원을 지불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르고, 집안 형편도 다르겠지만 거액을 지불하고 듣는 수업이니 교수님의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부모님의 지원 등 모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⑤ 비법대생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은 양이 정말로 많고 다시 봐도 많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7법을 이해하기에 빠듯한 시간입니다.

## (3)방학

방학기간을 무용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휴식, 공부, 인턴의 세 가지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강 직후와 개강 직전 각 1주 정도씩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휴식을 취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공부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비법대생 분들은 1학년에 인턴을 지원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학기에 배웠던 과목의 복습, 다음 학기에 배울 과목의 연습에 집중하시면 두 달이라는 시간이 이틀처럼 지날 것입니다.

## 4.마치며

로스쿨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법접근성을 높였다는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입학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글은 수많은 로스쿨생 중 1명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히며 마칩니다.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김남원입니다. 저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로스쿨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에 제가 합격수기를 쓴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혹시 제가 학부시절에 했던 것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을 분들을 위하여 용기 내어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글은 ‘막연한 꿈을 좇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글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정리한 글입니다. 앞부분은 학부생활을 기본으로 정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썼고 뒷부분은 정량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썼습니다. 모쪼록 제 경험이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2. 학부생활

#### (1) 법학을 체험하기

아직 학부에 법학 관련 과목이 있다면 반드시 수강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교양이 어도 좋고 특강이 어도 좋습니다. 저는 학부시절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과목을 통해 판례를 접해보고 법률 조문을 읽어보며 판례가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공부해보았습니다. 비록 한 번의 교양수업이었지만 법학이 저의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법학이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학문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느껴보는 것은 특히 비법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훌륭한 LEET 성적과 좋은 학점, 높은 영어점수를 갖고 있어도 법학 자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로스쿨에서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이 논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학은 문리적인 부분에서 가히 최고라고 할 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학문이고 또한 암기해야 할 양도 많습니다. 법학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또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쓸 얘기도 많아질 것이고 결국 입시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2)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기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학부로 입학하였고 전공으로 국사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인문학은 저에게 선인들의 풍부한 사유를 전달해주었지만, 저는 학기가 지나가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문과계열 학생들은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각종 시험을 준비해봅니다. 5급 공채 시험과 같은 공무원시험부터 시작하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같은 각종 전문직 자격증까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도 도전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PSAT를 풀고 행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길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여 LEET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5급 공채 시험은 불합격하였지만 수험생활을 하며 얻었던 경험은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앞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향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기소개서에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실패했던 경험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시험에 도전했던 경험은 직접적으로 LEET 점수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자신을 어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3. 수험생활

#### (1) LEET

사실 모든 수험생에게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LEET라고 생각합니다. LEET 시험의 특성상 당일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고 공부한다고 해서 쉽사리 점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영어점수, 학점)에 비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역시 LEET임에는 확실합니다. 2015년 1월부터 LEET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생각해보면 남들 보다는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20점대 성적을 받았고, LEET 준비를 함에 있어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풀어야 하는 것이 LEET 시험이기에 집중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은 집중력을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혼자 스태워치를 눌러가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

였고 이는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LEET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역시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는 한 번 만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풀고 난 이후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맞은 문제는 왜 이 선지가 맞는 지 일일이 분석하였습니다. LEET 시험은 기본적으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기분으로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문제를 푸는 속도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출을 분석한 이후에는 PSAT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PSAT 문제는 누적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문제를 분석하지는 않았고 연습문제처럼 풀고 틀린 부분만 검토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PSAT 지문이 LEET 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보다 직관적으로 선지를 선택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 한 달 전부터는 PSAT 문제는 보지 않았고 오로지 LEET 문제만 풀었습니다.

학원 강의도 잠깐 수강하였는데, 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직접 수강은 7월에만 하였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이원준 강사의 언어이해와 조성우 강사의 추리논증 기본강의만 들었습니다. 기본강의가 기출을 포함하여 PSAT, MEET, DEET, PEET 문제 등 이미 검증된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강의는 듣지 않고 기본강의만 들었습니다. 강사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설명하는지 보면서 정제된 다량의 문제를 접하고, 문제를 푸는 기술적인 측면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LEET는 많은 양을 풀어보는 것보다는 적은 양, 특히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자기소개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정성요소가 없었습니다. 제2외국어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자를 어렸을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6학년 때 이미 한자능력검정시험 자격증 2급을 소지하였고, 국사학을 전공하면서 학부에서도 한자를 늘 접했으며 이는 법학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진로에 관하여 막연히 검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되어 특정 과정을 거쳐 UN 마약범죄사무소에서 일하고 싶다고 기술하여 제가 진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3) 면접

면접은 반드시 스터디를 하시길 권합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어볼만한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기 힘든 가치충돌의 문제이고, 이는 생각보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은 꼭 스터디를 하시면서 기출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이면의 가치충돌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스터디를 일주일에 세 번을 진행하였고 총 4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한 명이 면접자가 되고 나머지 3명이 면접관이 되어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질문-답변이 끝난 이후 그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였고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 떨림을 확실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4. 나가며

시작은 거창하게 하였는데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니 짧은 필력에 다시금 부끄러워집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로스쿨은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공간이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게 하는 것이 로스쿨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신이 변호사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으시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EET는 로스쿨에 가는 첫 관문이라 생각지 마시고 ‘마지막 뒤집기’라고 생각하시고 필사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훌륭한 법조인 선배로 만나길 바랍니다!

## I. 들어가며

직장생활 경력도, 사법시험 합격 경험도 없고, 학부시절 학점과 토익 성적마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 이러한 글까지 쓰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며, 저의 경험이 많은 준비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II. 입학 준비 과정

### 1. 학부 생활

저의 학부 학점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수강을 위하여 계절 학기를 수강한 뒤 4학년 2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유만을 남기고 4학년 1학기부터 최대한 재수강을 하였습니다. 힘들기도 하였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학점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 재수강 과정에서 많은 후회를 하였고, '내가 어렸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하였다면'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만약 지금 다른 준비생, 특히 아직 졸업에 조금 여유가 있는 준비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에 집중하여 학점을 최대한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기 중, 그리고 방학 중에 논리학 공부를 홀로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개설되는 형식논리학 및 실용논리학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는 여름에 있었던 법학적성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만약 학교에서 그러한 수업이 개설된다면 꼭 수강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 2. 법학적성시험 준비

리트 준비를 위해서 법대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와 함께 스터디를 조직하였습니다. 학교커뮤니티를 통해서 5명 정도의 인원을 구한 뒤, 2015. 3.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터디원 5명 중 3명이 학생이고 1명이 직장인이었기에 학기 중에는 부담을 줄이려고 주 2회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시험기간과 전주를 포함한 2주간은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최대한 기출문제를 활용하되, 아직 법학적성시험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기출문제가 모자랐기에 시중에 발간된 PSAT, MEET, 수능 등의 문제가 담긴 문제집을 구하여 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 역시 한정된 문제의 수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시간이 모자랐기에 문제는 각자 스터디 1회당 언어이해 35문항, 추리논증 35문항을 풀어온 뒤 함께 모여서 각자 틀린 문제들을 취합하여 그 해제방식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에 스터디 일정을 주 3회로 늘리는 한편, 현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뒤 스터디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 논술고사를 제외하고 문제의 풀이방법을 토론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학원을 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학원을 가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저의 노력과 스터디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2015. 8. 법학적성시험에서 언어이해 29개, 추리논증 28개로 총 표준점수 130.8에 해당하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 3. 자기소개서 및 면접고사 준비

법학적성시험의 점수가 공개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서접수기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점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는지 가늠하기란 매우 어려웠고 원서를 접수함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국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리트점수를 많이 반영한다고 소문이 난 두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서접수 이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기한이었기에 자기소개서를 너무나 급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학교가 비슷한 사람들을 위주로 스터디를 모집하였고,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각자의 자기소개서를 교환하고 첨삭하였습니다. 1주일 동안 거의 10회에 달하는 첨삭 끝에 초안과는 완전히 달라진 저의 자기소개서를 보며 당시에는 완벽하다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합격 발표 이후 겨울에 다시 읽어본 저의 자기소개서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다고 느껴졌고,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상황이 닥친다면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보고 첨삭을 하는 등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자기소개서를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면접의 준비 역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도록 시간을 재는 한편, 내용이 아닌 자세와 표정, 눈빛 등에도 스터디원들 간에 서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스터디원의 모집을 비슷한 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로 한 결과, 2명이 면접자가 되어 면접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의 내용을 준비함에는 하나의 교재를 정하고 이를 위주로 스터디원들과의 토론을 하였으나, 일부 주제에 관하여 그러한 주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도출하기까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그 근거가 합당하고 과정이 타당한지 여부라고 생각하며, 이는 단순히 면접 준비용 책을 본다고 단시간에 성장하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면접고사가 닥쳐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기 보다는 평소에도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Ⅲ. 면접고사와 합격 발표

#### 1. 면접고사 당일

저는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면접현장은 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부담감은 순간순간마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군 면접과는 달리, 면접을 한 번 경험해보았다는 자만심에 나군 면접에서는 오히려 너무나도 긴장감이 없는 상태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군과 나군 모두 최초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렇게 기말고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는 단순히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며,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과중하게 느끼거나 한편으로는 무의식 중에 오만함을 표현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원하는 인재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1차 추가합격 발표

불합격 발표 이후 거의 매일 학교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며 추가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한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2016. 1. 추가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기쁘게도 그곳에는 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자연스럽게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늘이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Ⅳ. 마치며

사실 저의 많은 법대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불합격하여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람들 중에도 역시 불합격하여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목표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며 제가 느낀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또한 그들의 생각을 전해 들으며 보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격수기를 쓰는 데에 자원하게 된 이유는 정성적 요소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많은 노력을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는 ①최대한 학부 성적을 잘 받을 것, ②법학 적성시험을 대비하는 점에 있어서 단순히 문제 풀이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할 것, ③원서 접수에 있어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것, ④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에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나아가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1년의 준비만으로 바로 합격하였지만, 만약 불합격하였더라면 위의 그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음년도에 다시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길게는 저의 법조인을 향한 꿈에, 짧게는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저의 생각에 기회를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감사드리며 저의 짝막한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1. 들어가는 글

어느덧 27살이 되었다. 어릴 적 바래왔던 것과는 달리 이루었다 자평할만한 것이 변변치 않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당연하게도 아직 기록에 남길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런 내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수기작성을 자청했다. 꿈꿈이 고민해보았다. 이런 곳에 글을 써보내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내가 어찌서 입학수기를 작성하겠다고 다짐했을까. 답을 찾기위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이 못미더운 카페에서 한컴사전을 켜 수기의 뜻을 찾아보았다. '수기(手記) : 【명사】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 따위를 직접 쓴 기록. 수록(手錄).' 중압감 느껴지는 어감과는 달리 수기의 의미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입학수기란 아마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나의 생활과 체험을 쓴 기록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공간을 빌어, 가벼운 마음으로 결코 가볍지 않았던 나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강의를 맞이한 오늘, 지난 2015년의 손현명을 반성하여 2016년과 그 이후의 손현명을 그리는 첫걸음을 내딛어보고자 한다. 또한, 바라건대 부디 이 글이 법학전문대학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문을 통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때로부터 면접당일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장려할만한 good과 그렇지 않은 bad로 나누어 요약하고자 한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삼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꽤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는 이러한 과정은 생략된 채, 다른 진로에 뜻을 두다 법학에 대한 관심이 번갯불에 콩 볶아지듯 샘솟았다 적혀있을 것이다. 이는 대체로 사실이나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심적으로 갈등했었다. 당시에 나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선택한 진로가 맞지 않으면 어찌지'하는 두려움, 혹은 '내가 지금 원하는 진로라는 것이 정말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그 진심이라는 건 정말 있긴 하는 건가'하는 존재론(?)적 혼란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기에, 당시 내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자신감 결여의

문제였다. 자신감이 없기에 결정과 결심은 계속 유예되고, 유예된 진로는 결국 졸업유예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그 시간 동안의 혼란과 이에서 비롯된 헛된 헤메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제법 생산적이었다.(필자가 부모님 혹은 잘 보일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바보같은 짓을 반복하지는 않을 테지만, 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몇 년간의 혼란이 생각보다 나의 큰 자산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good : 경험은 다다익선.

△ bad : 미루는 습관은 사람을 나태하게 한다. 이러 저리 해맸을지라도 좀 더 부지런했다면 보다 많은 경험과 배움이 있었을 것이다.

#### 3.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와 스펙쌓기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내가 마주했던 것은 더 이상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상냥한 나의 멋진 마음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무엇보다 학점이 최종적으로는 높지 못하게 나왔다. 그렇기에 15년 1학기는 리트를 위해 힘쓰고자 했다.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 겹쳐 본격적인 리트 준비는 7월부터 시작했다. 주위의 동기들과 후배들이 이르면 14년 겨울, 늦어도 15년 5월부터는 준비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히 늦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슨 자신감이었던지 별로 위기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결과적은 그 자신감은 근거가 없었으나, 당시에는 이 자신감 덕택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포기하지 않았고 적어도 2달 남짓의 기간만큼은 누구보다 집중할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당시 행정고시 2차 시험을 갖 치고 나온 절친한 동기와 스터디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 친구를 통해 리트를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 유달리 더위를 많이 타는 내가 일주일에 3회씩 거르지 않고 테스트를 하고 거의 매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의 성실함과 따뜻한 배려심 덕분이다.

이때, 나는 사설모의고사는 풀지 않았다. 시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실제 기출 문제를 반복하여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공부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답노트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 수리영역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오려 노트에 붙이고 다시 풀어보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방식은 추리 논증영역을 공부할 때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언어영역은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어영역을 오답노트 할 때는 해당 지문과 문제를 노트에 붙이되, 풀이

방식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잘못된 답을 구하게 된 거지?’에 대해 적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틀리는 양상을 반성하는 식으로 작성했다. 오답노트라기보다는 반성문에 가까웠다.

또한, 나는 언어영역이 처음 풀 때부터 실제시험에 이르기까지 솔리드하게 고득점이 나왔다. 그러나 추리논증영역은 놀라우리만치 큰 기복을 보였다. 이러한 기복을 차치하더라도 논리게임 유형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리트 출제 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출제하는 PSAT의 기출문제 가운데 리트의 추리논증영역과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풀고, 역시 오답노트했다.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 논리게임 파트에서 대량 감점을 당하지는 않았다. 대신 거의 틀리지 않았던 유형에서 틀린 것은 뼈아프다. 공부하는 편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잠깐 잊었으나보다. 아쉽게도 나의 최종 리트점수는 그리 높지 못했다. 첫 기출을 풀 이후로 계속 상승세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지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 good : 밀도있는 학습 / 훌륭한 스터디메이트 / 자신감

△ bad : 편식공부

#### 4.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준비하며

리트를 치고 나서 재빠르게 움직여야한다. 학내 커뮤니티, 법학전문대학원관련 웹커뮤니티를 통해 자기소개서스터디와 면접스터디를 구성할 수 있다. 나는 역시나 늦게 시작했다. 그러나, 느슨한 마음가짐으로 오랫동안, 여러 스터디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확실하게 운영되는 하나의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는 분들보다는 입결이 1~2단계 높은 대학원을 지원하는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보다 이롭다. 나 역시 이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운영하거나 참가했다.

서류합격을 통보받은 이후에는 비로소 자신이 지원하는 면접스터디를 진행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스터디를 구한다. 일전의 면접스터디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실제 면접이 임박한 만큼 주당 2-3회 운영하는 것을 추천하고, 세부적 운영에 있어서는 기출 위주로 하되, 실제 면접과 마찬가지로 자리를 세팅하고, 시간을 한정하며, 무지막지한 피드백과 반박질문을 해야한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리라. 아, 벡타이 때는 것은 전날 연습하도록 하자. 우리의 머리만큼 손이 영리하진 못하더라.

△ good : 한 단계 높은 학교의 면접스터디 / 실제와 같이 진행한 스터디의 효과

△ bad : 벡타이 때는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지각으로 탈락하는 참사를 빚을 뻔했다.

#### 5. 나오는 글

지금까지 쓴 글을 읽어보니 일기로 시작하여,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의 자녀님들도 명문대에!’ 류의 글이 되었다. 내가 바라던 바는 아니나, 입학수기를 읽는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은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애매한 기분이다. 그렇기에 글도 애매하게 두겠다. 이처럼 글을 raw한 상태로 놔두는 것은 부디 이 생생한 경험담이 나보다 성실하고 재능있는 분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나처럼 못난 청년들에게는 친근한 조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강한 오늘, 나 역시 이글을 반면교사 혹은 조언 삼아 보다 건실한 청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끝으로, 여러분의 1년과 마찬가지로 나의 1년 역시 후회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경험은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입학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사회경험을 하다 온 만큼, 현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법전원에 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술한 글을 써 내려 가려고 합니다. 이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결심하게 된 계기, 입시 전형 요소와 공부 방법 순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결심하게 된 계기

사회에 계신 많은 분이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여 서두에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2006년에 입학하여 2011년2월에 졸업하였고, 국내 4대 그룹 사기업 법무팀에 약 4년 정도 근무 후 법전원 입학과 동시에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생활을 돌이켜보면 함께하는 구성원, 업무 분야와 근무 강도, 급여와 복지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에 입학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법학을 제대로 다루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즉 자격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일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법학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학문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좋은 직장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왜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지 않았고, 저 역시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굳은 열정이 있었기에 입학 준비과정은 물론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입학 준비에 앞서 진지하게 생각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 2. 입시 전형 요소와 공부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전형요소는 크게 학점, 공인영어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은 대학교 학부 시절의 성적으로 특별히 서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하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입시전형 진행 순서에 따라 각 요소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 시 제가 공부하였던 방법을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인영어 성적

공인영어 성적은 TOEIC, TEPS, TOEFL 등의 영어 성적을 포함합니다. 학교마다 인정하는 영어시험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교 공식 홈페이지의 입시 요강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될 것이 요구됩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취업준비를 위하여 대부분 TOEIC 점수를 마련해두실 것으로 생각되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법학적성시험은 크게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그리고 논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논술 영역은 학교마다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완급을 조절해서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법학적성시험의 개요와 실시일과 관련해서는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회경험자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요소가 LEET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언어이해 영역은 수능 언어영역의 '법학'버전이고, 추리논증 영역은 대기업 인적성 검사의 '법학'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다른 기술이 요구되거나 지식을 암기하는 시험은 아니고, 실생활에서 꾸준히 독서와 논리적인 사고를 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고 실제로 공부한 기간은 두 달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공부 방법을 말씀 드리면 주말 오전에 시간을 내어 시간을 맞춰 문제를 풀어보고 주말 오후와 주중에 틈을 내어 문제의 풀이를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무엇보다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책은 법학전문협회에서 나온 공식 기출문제집만을 보았고 기타 학원서나 인터넷 강의를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출문제가 꽤 많이 쌓였으므로 이



것만 꾸준히 익히고 간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언어영역에서는 법학 외에도 철학, 사회과학, 인문,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지문이 다뤄지는데 평소에 흥미가 전혀 없는 분야의 지문을 읽는 것은 다소 피로울 수 있으므로 그 분야와 친해지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실제로 과학지문과 친하지 않아 시험을 앞두고는 이에 익숙해지고자 신문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가까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3)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성적이 나온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성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초안을 작성해두시길 권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인들에게 꼭 한두 차례는 첨삭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자신의 실수는 자신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의 경우 명확한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 부분은 제 생각을 쓰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간략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보겠습니다.

아마 취업 준비 등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미 그 어떤 수험생들보다도 자기소개서의 달인이 되셨겠지만, 막상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자기소개서를 쓰자면 고민이 될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법조인답게 쓰자'라는 저만의 답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글은 논증의 구조를 잃지 않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장점을 기술 할 때도 단순히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요소(예를 들면 경력, 학점 등)를 함께 기술하여 명제를 서술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내용 측면에서도 사기업에서는 '내가 얼마나 그 기업 조직에 친화되어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맞췄다면 법전문 자기소개서에서는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법조인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 법조인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므로 사기업과는 달리 윤리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강조하여 서술하는 것도 좋으며, 지원학교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4) 면접

서류전형을 거치면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전 구성원을 대상으

로 사내교육을 진행하는 등 갖은 프레젠테이션을 한 경험이 있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습디만,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면 연습을 통하여 미리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권합니다. 학교마다 면접 문제가 다양하므로 기술 문제를 확인한 후 이에 맞게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였고 제가 지원한 학교가 암기하여 답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어 면접 직전이나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인성면접 대비를 위하여 제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었고, 지성면접 대비를 위해서는 헌법과 민법의 개론서에 적힌 기본원리들을 간단히 익히고 갔습니다. 지성면접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법학사과와 기초 법 원리들을 아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전문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법학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3. 마치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배움에 대한 열망만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곳 또한 다른 어느 곳에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있기에 단순히 호기심에 발을 들인다면 그 선택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겨우 1년밖에 다니지 않았기에 감히 직장생활과 법학전문대학원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는 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기에 조금 힘들지만 많이 행복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절망하시는 모든 사회경력자분들께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는 말씀과 응원을 전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들어가며

처음 수기 작성을 요청받으며 어떤 글을 적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이라 가볍게 치부하여 단순히 양만 채워 제출하기에는 이 글이 부족하나마 진로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에 지금도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작성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만큼 충실한 준비를 하였는가?” 의문이 남지만 최대한 진솔하게 제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 반드시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 분들이 들었거나 혹은 읽게 될 조언들은 저의 이야기와 유사할 수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어 “이런 마음가짐,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참고만이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결심하기 까지

특별 전형의 입학 수기를 작성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 가능하겠지만 유년시절부터 가정형편이 곤궁하였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자연스레 마음이 쓰이고, 그들이 처한 처지에 대해 심한 부조리를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들의 권유에 무심코 함께 하게 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을 통해 학내 비정규직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노무사,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으로의 진학 등 많은 대안을 구상해 보던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시절 함께 활동하다 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선배의 조언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앞서 고민했던 대안들 중 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기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장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상에 자주 등장하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민변이라는 단체의 활동 역시 그런 제 판단을 조금 더 공고히 해주었습니다.

다만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고 난 후에도 많은 부수적 사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나 특별 전형으로 진학을 시도하고자 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확신을 갖기까지의 시간을 끊임없이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한 번은 도전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등록금은 최악의 경우 학자금 대출로 마련하면 된다는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품은 채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을 한 지금에 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때론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정보다 조금은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내린 결론 덕에 기쁨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 학점보수와 법학적성시험 및 공인 외국어 시험 준비

많은 수험생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자 이 수기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감히 짐작해봅니다. 학점의 경우 많은 학생들의 생각에 그 중요도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온당한가는 차치하고- 학점은 이전 까지 그 수험생의 생활을 판단할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이고, 따라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학생의 생활태도나 노력을 정량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저 역시 그간 도외시하던 전공과목의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학을 결심하고 1년 반 정도는 전공 공부에 전념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때 낮은 학점을 받았던 몇몇 과목의 재수강을 통해 학점 수복에 들어갑니다. 본래 학부가 법학과가 아니었던 탓에 이 과정은 지루하고 지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공부는 이것이 아닌데 전혀 무관한 영역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초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차후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 슬럼프의 일종이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진학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었다 하겠습니다. 특히나 인턴 경험이나 수상 경력, 봉사활동 내역 등 정성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대외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하던 저로서는 이 학점이라는 부분이 결코 무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물론 전술한 바처럼 학점이 낮은 수험생 분들일지라도 대외활동 등 정성적 영역을 보충하여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니 미리 낙담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만 저처럼 대외활동 경력이 없는 수험생들이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하며 올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1년 반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4.3만점에 3.8 정도의 학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높은 학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학년 때의 학점이 워낙 낮았던 탓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라 자평하고 있습니다.

법학 적성시험 준비에 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인영어 시험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

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고득점의 영어 성적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 많아 제 이야기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저처럼 영어를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일말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학 이후 영어를 손에서 놓았던 지라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 획득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몇 차례 필요에 의해 응시했던 토익 시험에서 700점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능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안감을 안은 채 저는 2015년 1, 2월 두 달간은 영어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난생처음 학원을 수강했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진도와 숙제를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입학 기준이 되는 최저점수를 간신히 넘었고, 이후 매달 시험에 응시는 하였으나 공부 없이 시험만 쳐서인지 처음 받은 점수에서 상승 없이 원서 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크게 높지 않아도 기준만 충족한다면 그리 큰 불이익은 없지 않은가 하는 추측의 말씀뿐입니다. 특히 학교마다 다르지만 특별 전형의 경우 요구하는 영어점수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지라 그런 점에서 이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혹시나 영어 성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영역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리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의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중의 강도를 가장 높였던 시기는 마지막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건데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험 당일에 맞춰 감각을 날카롭게 갖고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과 감정상태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때문에 지나치게 긴 준비 기간은 그러한 집중과 감각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기간에는 법학 적성 시험의 형식과 내용 역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법학이라는 학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로인해 슬럼프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준비하던 친구들의 경우 그렇게 시험 점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해서, 요지는 수험 기간을 길게 잡고 여유롭게 준비하시기보다 조금은 밀도 있고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준비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처럼 영어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영어 시험 준비와 병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제가 준비한 방식이자 저의 사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법학 적성 시험에 대한 준비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3월부터 초반 2

개월의 경우 언어영역과 추론영역의 기본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별도로 스터디를 구성하지는 않았고, 인터넷 강의료가 부담이 됐던 탓에 친구 한명과 가격을 분담하여 지불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친구와 강의를 들었고, 당시 그러한 심리적 강제가 저의 학습 과정 전반에 선순환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글을 읽는 수험생분들께서도 가벼운 수준의 생활스터디를 구성해보시는 것이 좋을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기본 강의 이후 학원 커리큘럼은 심화 과정을 권장하였으나 언어영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강의를 듣는데 대한 큰 이점을 찾지 못했던 터라 추리 논증영역만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특히 수리 추리나 퀴즈 영역에 약했던 탓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유가 남는 수험생 분들이라면 학부 기초 과목 중 논리학 과목을 수강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논리 추리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고 나니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학원과정의 하프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 사 등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예비시험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기출 문제를 끊임 없이 복기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엄수하고자 노력했고, 답을 맞추고 해설을 할 때는 해설지를 보기보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기출만을 반복하다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시행하는 파이널 모의고사 등을 친구와 함께 구매하여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다졌습니다. 그때도 해설 강의는 일체 보지 않았고, 문제를 풀고 직접 해결해보는 과정에 천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험일 평상시의 점수보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일정 수준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정련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접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쯤 고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4.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10월 초 원서를 접수한 후 각 군의 지방학교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점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일이 촉박하여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9월 중순 법학 적성 시험의 성적이 나온 후 미리 제출 서류 목록을 준비해 두신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오롯이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각 군의 학교에 대해 두 개의 자기소개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드

릴 수 있는 조언은 진실되게 진심을 담아 작성하라는 것뿐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런 기본적인 말을 조언이라치고 올리는 까닭은 저 기본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각각의 자기소개서에 투입된 노력과 시간, 심리적 거부감 등이 각기 달랐습니다. 한 곳은 저의 실제 소신이나 진로에 대한 동기 보다는 학교의 특성화 교육 혹은 그 학교의 구미에 당길 만한 말들을 포장하여 작성 하였고, 다른 한 곳은 이 수기에서 작성한 내용처럼 있는 그대로의 동기와 제 포부를 적었습니다. 당연히 후자를 작성할 때 더욱 짧은 시간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으며, 전자를 완성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 채워지지 않는 빈 종이를 보며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면접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포장 없이 제 속내를 그대로 적어낸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고 급조한 포장으로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면접에서 그 깊이가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 부득불 강조드립니다.

면접 준비 과정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스터디를 조직하여 서로 주제를 정해 문답식으로 연습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데 이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해 혼자 준비 과정을 소화했어야 했는데, 로스쿨 면접 핵심 250 주제 1~3권 까지를 통독하고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읽는 과정에서도 그 안의 쟁점과 찬반론을 그대로 암기하기 보다는 나만의 언어로 체화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평상시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구독하는 일간지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만약 여유를 가지고 입학에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꾸준한 독서와 신문 구독을 권장합니다. 면접은 물론이고 이는 언어영역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 5. 끝맺으며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제 수험 준비과정을 이렇게 수기로 내보인다는 게 글을 끝마치는 지금 시점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글을 쓴 첫 번째 이유이며, 제 스스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돈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글이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과의 조그마한 인연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가 꿈을 이룰 수는 있지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김승일

### 1.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좋은 추억이 되지만, 당시에는 때론 가혹하리만큼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고, 모자란 게 생각하기에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고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같이 회상하고, 지난 날 꿈꾸셨던 바램들을 떠올리실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모자란 글에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응원과 격려,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넘어 왔던 고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2.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정확히는 우측 손을 제외한 삼지가 신경마비로 인하여 불편합니다. 어릴 때 주된 기억들은 어머니의 등과 병원 침대 위가 무대였습니다. 늘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았고, 무서운 기구들에 몸을 맡겼고, 의사 선생님과 다른 환자들이 유일한 대인 관계였습니다. 그 때의 바람이라고는 잠잘 때만이라도 다리와 허리에 달린 보조기를 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병원을 가지 않는 날에는 교회와 점집을 왕복하였습니다. 기도원이란 곳에서 안수를 받는다며 목 뒤의 살을 일주일 간격으로 손톱으로 파 긁어낼 때마다 자지러지게 울면서도 어린 마음에 아멘을 외쳤고, 점집에서 악귀를 쫓는다며 손바닥을 칼로 긁을 때도 북 달아난다고 웃으라는 무당의 말에 웃었습니다. 7살 때 죽은 신경과 살아 있는 신경을 이어주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희망적인 뉴스를 보신 부모님께서서는 빛을 내어서 서울에서 수술도 시켜주셨습니다. 덕분에 6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뼈뿔뿔 조금씩이라도 '걷는다'라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덩치가 점점 커지는 저를 업고 다니시느라 허리에서 늘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번번이 흩어지고, 고통에 우는 어린 아들을 볼 때의 어머니 마음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덜 슬퍼하시게 고통을 참는 정도만 감당하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장애인 기관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실제로도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가 심했으며, 폐쇄적인 정보로 인해 부모님께서도 저를 일반학교에 진학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거절당하고,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시골 학교에 겨우 입학하였습니다. 유치원도 못 다녔고, 그전까지 한글은 버스나 표지판을, 숫자는 차량 번호판을 통해 겨우 덧셈 뺄셈만 배웠습니다. 저학년 때는 어머니와 거의 학교생활을 같이 했고, 고학년이 되어 제 치료를 위해 따로 살았던 여동생이 입학하여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빼고는 이야기할게 별로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 3.

다행히 몸은 조금씩 나아졌고,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생 50여명인 시골에서 다녀 교우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동네 놀이터에서 구슬치기나 비석치기 같은 놀이를 했고, 봄가을에는 논밭에서, 여름에는 산에서 놀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책도 많이 읽었으며 여러 백일장이나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탄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내에 있는 덕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으로 매일 기숙사에서 새벽 2-3시까지 공부했고, 2학년 때 다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찰 결과 척추의 연결 고리 하나가 없어서 통증이 유발되어, 엉덩이에 있는 뼈를 이식하는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휴학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았으며, 완쾌가 될 무렵 다른 의미로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께서 IMF로 인하여 실직을 당하셨고, 퇴직금도 많은 부분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 매일 술을 드셨고,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순차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도끼로 방문을 찍으실 정도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 때문에,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도 여러 번 시켜 보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어머니께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셨을 때,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19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 4.

어머니, 동생과 집을 나올 당시 가지고 있던 1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잘 곳과 먹을 곳이 필요했고, 하루하루가 걱정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조금씩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동생은 너무 어렸으며, 당뇨가 있으신 어머니는 수술이 시급할 만큼 시력이 안 좋아지

셨습니다. 3개월을 길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역 대합실, 다리 밑, 가끔 각자의 친구의 집, 여인숙 같은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웠습니다. 아폴로 눈병을 고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이 걸렸을 때, 피시방 구석에서 자다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편의점 폐기될 음식을 남겨줬다 주는 친구 덕분에 끼니를 이었고, 어느 때는 모르는 분께 동남도 하였습니다.

세 가족이 하루를 킵라면 1,2개로 보낸 적이 허다했고,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그 다음에는 통닭 배달, 케이블 영업, 대리운전 등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적응도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졸업장을 위해 하루 2,3시간만 있었고, 고3인 20살 때에는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니 한 칸짜리 쪽방이지만, 세 가족이 발 뺀고 잘 수 있을 공간이 생겼고 그 때의 감동과 안도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으니 10군데 정도 찾아 가서 사정해야 한두 군데에서 일하게 해주었고, 그마저도 임금을 깎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약속한 금액과 다른 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수습 기간이라고 한 달간 무료로 일하고 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직장체형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저는 장애인 보호 기관에 배정 되어 거기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장애인 인권 침해는 심각했습니다. 욕설과 구타는 기본이고, 수급비 갈취와 과잉 노동,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임신한 여성의 중절 수술과 아예 임신을 못하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저는 힘이 없었고, 관계 기관들은 제 말을 무시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그 기관의 담당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어쩌면 제가 겪었을 지도 모르는 일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 아는 여동생이 집단 강간을 당하여 자살을 하였는데, 경찰관에게 들은 답변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채무로 인하여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길래 말리려다가 집단 구타도 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맞은 합의금으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좌절감과 죄책감이 되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21살 때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부담이 줄어들었는데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월세방값을 아끼려고 외갓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5.

그 당시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중에 100만원도 없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큰삼촌께서 무리하셔서 처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장학금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학비 걱정은 없었지만, 가족들과 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 때 2년 넘게 못 보던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월화수목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금토일은 지방에 내려와서 과외와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20살이 되자마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였고, 불 때마다 손과 발이 부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가 감당 안 될 즈음에 수급자 선정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조금씩 받아 부담이 덜었지만,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과외에 집중하였습니다. 3학기 다니고 휴학한 후, 3학기 동안 생활비를 모아서 복학하고, 또 3학기 다니고 휴학해서 돈벌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매일 8시간씩 일주일 내내 과외를 했습니다.

큰돈은 못 벌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빚도 모두 갚았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십년 동안 쉰 날이 합쳐서 한 달이 안 될 만큼, 일주일 내내 성실함 하나로 일했습니다. 대학교 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러 신림동으로 떠나는 동기들이 부러웠습니다. 학원비랑 고시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든다는 동기들의 말은 제게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한 달이라도 일을 쉬게 되면 부모님의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멋 내는데, 츄리닝 하나나 버티면서 식당 일을 하는 여동생의 책임을 가중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낮은 확률을 위해서는 포기할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6.

대학교 때 재단의 장학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 2회 멘토링을 하는 게 장학금 수급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학생들을 모아서 시설 관리나 교류 같은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3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봉사활동 시간이 700시간이었고, 연계하여 교류한 5개 기관과 학생들의 총 봉사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꾸준히 많은 사람들과 연계하여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개천의 용'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개천에 있어 보면, 개천에 필요한 것은 용이 아니라 개천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 사는 곳에 개천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인 김제는 인구 10만여 명이고 노인과 다문화과정이 많고, 시골 가정 폭력이 빈번한데도 변호사 사무실 하나가 없었을 만큼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마땅히 보호 받아야 될 권리가 법을 통하게 되면, 먼 이야기가 되고 고비용이며 심적 부담이 더해집니다. 희망의 사다리와 개천의 용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나름 수년간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7.

로스쿨에 가겠다고 말하고 다녔을 때마다, 사람들은 왜 사법시험을 안보냐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정확히는 앞서 말했듯이 못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대학생마저의 꿈도 겨우 이른 저에게는 과분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로스쿨 3학년입니다. 제도의 역이용과 기득권의 흠집내기로 인하여 로스쿨 생활동안에 하고 싶었던 진정한 인권 활동이나 관련법은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한 수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자폐아동 기관, 노인복지 기관의 봉사활동도 뒤늦게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한 여동생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명절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에 간식을 조금씩 선물합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 시키는 법조인이 되려면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래도 법조인이 많아져야 국민과의 밀접도가 높아지며, 국민 평균의 법의식이 향상 되어 범죄에 노출 되거나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이 줄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도 손쉽게 구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시간 일해서 생활비만 벌고,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공부에 매진합니다. 처음에 기사로 로스쿨에 대해 들었을 때는 고비용에 덜컥 겁이 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걱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원광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집에서 가까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학금 수급률이 높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학교 강의에 충실하고, 기타 실무 관련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은 튜터링이나 학교 지원을 통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들도 책 한권 살 때마다 여러 번 고민할 정도로,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이지도 않습니다. 매일 열람실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때는 날을 안 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업에도 매진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부자였다면, 저부터도 박탈감이나 상실감에 못 버텼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일정 부분 이상을 특별 전형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절대적 빈곤 계층에게는 로스쿨만이 소위 개천의 용이 되는 길입니다. 하물며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도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견에 휩싸여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해결책을 간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가 바라는 건 욕심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

모두가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지원해준 국민, 학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받아 왔듯이 말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밤에 좋은 꿈꾸시길 기원합니다.

## 어느 파일럿의 저공비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이슬

\*이 글은 반수픽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삶이라는 것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찾기 힘들다. 즉, 거기에 제대로 된 픽션의 소재 같은 것이 될 만한 구석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A의 삶 역시 부러 남에게 보여주고 꽤 재미있지 않느냐고 재차 확인할 만한 것은 못 된다. A는 적지 않은 나이에 진로를 틀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학부에서는 국문학을 공부했으며, 그것이 A가 아는 모국어의 전부나 다름없었으므로 그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법이라는 것을 일생 배울 일 없는 남의 나라 언어처럼 생각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끌고 다니는, 법과는 상관없는 책장 몇 칸 분량의 책들과 그 책이 놓인 원룸 사이즈의 빈한한 공간을 자신의 국경으로 삼은 지 오래되었다. A가 로스쿨을 택한 것은 그러한 세계를 확장해 보려는 목적을 지닌 인문학도 특유의 순진한 계획의 일환이자 A 나름의 생존전략이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인문학도가 번듯한 이름이 붙은 직업을 갖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란 대체로 수고스럽기 마련이다.

A가 로스쿨에서 1년 동안 한 일은 대체로 앉아서 읽고, 앉아서 듣고, 앉아서 절망하고, 앉아서 버티고, 앉아서 자는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비활동들의 다양한 조합이었다. 로스쿨생들은 마치 큐브 장난감의 부품처럼 상하좌우로 열을 지어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큐브 자체를 이탈하지는 못한다. 403호에서 102호로, 1법학관에서 3법학관으로, 기숙사에서 자습실로 이동할 뿐이다. 매년 합격률이 떨어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과 엄정한 상대평가를 통해 알파벳을 인색하게 배분하는 필수과목들을 버티내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보듬다 보면 별 수 없이 삶은 무미건조해진다. 결국 로스쿨생이 쓰는 수기라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지하생활자의 수기』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지도 모른다. 삶에 대한 불안. 고립된 세계관. 바깥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 존재가치의 증명.

그런 문학적인 수준의 깊은 절망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다양한 처리 방법을 발명해낸다. 동기들과 한없이 수다를 떨거나, 학교 바깥에서 찾아낸 맛집에 연일 드나들거나, 학회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술을 마시러 가거나, 늦은 밤에 치킨을 시켜먹는 등의 자기 파괴적이고 낭비적인 각종 행위들이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A가 기억하는 로스쿨에서의 사소한 행복이었다. 그 외에도 A는 열정

적인 교수들의 강의, 사소한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가끔 지적인 자극을 주기도 하는 학회 사람들과의 유대감, 공부하다 눈을 들면 보이도록 좋아하는 그림이 인쇄된 엽서를 책상 앞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자신의 자습실 자리를 좋아했다.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 학교에 도착했을 때 법학관 앞 건물에서 사 들고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는 커피의 내음도.

A가 공부하기 위해 책을 읽었던 나날들의 절반은 마치 어둠 속에서 점자를 훑는 것 같았다. 더듬어 읽는 말들의 윤곽은 다가왔다가도 이내 종이와 공기 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그것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 A는 시계를 든 토끼를 쫓는 것처럼 분투해야 했다. A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머리에 옥여넣으며 경쟁적인 공부의 레이스를 달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로스쿨적인 환경에서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 고통의 틈새에 가끔은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어, 그것을 등불 삼아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었다.

작년 12월,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학사일정 거부에 나섰을 때, 시험 일정과 일상을 잃고 방황하는 기분이 된 A는 동기인 B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신세를 한탄했다. 그때 B는 A에게 “바깥에서는 우리를 ‘금수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안에서 불행할까”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이후로 A는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은 금의(錦衣)가 아니라 남루였다’는 박완서 소설의 한 구절을 가끔 떠올렸다. 지나친 자기연민을 경계하기 위해 훌륭한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특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는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날들을 위해 늘 몸을 숙이고 글자를 훑어야 하는 삶 속에서 A는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자조의 농담에 익숙해졌다. 정년이 다가오는 부모에게 미래의 자신의 상상도를 팔고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 살아가는 일상의 불성실함을 잊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같이 학교를 다니는 많은 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매일 목도하는 환경에 놓인 A는 자신이 성실한 학생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었고, 자습실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존경심과 농을 섞어 ‘자습실의 반딧불’이라고 불렀다. A가 로스쿨에서 받은 성적은 학부 때 건성으로 공부하며 받은 성적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A는 바깥 세상의 혹독함을 나름대로 반영했을 것이 분명한 로스쿨이라는 작은 세상의 시스템에 이따금 의문을 품었지만, 대체로는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A는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늘 ‘열심히 해라, 밥 잘 챙겨먹고.’같은 부모님의 마무리 멘트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전화를 끊는다. 그렇게 본래 의미조차 점차 희

미해져 가는 박제된 대화조차도 가끔 선명한 추억처럼 A의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그게 무엇인지 아직도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A는 끊임 없이 그렇게 되된다.

저공비행으로 날아도 무사히 착륙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 어쨌든 그렇게 A는 생각했다. A는 겨울방학 중에 학교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때 A는 돈을 아끼기 위해 가장 싼 비행기표를 샀었다. 타지에서 공부와 새로운 만남의 경험들은 즐거웠지만,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무서웠다. 역시 좋은 비행기를 예약할 걸 그랬나, 하고 조금 후회도 했다. 그러나 그런 작고 지친 비행기라도 부서지지 않고 어딘가에 착륙만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엔진을 식히고, 연료를 넣고,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에 다시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과 함께 A의 불안한 여행을 지탱하는 다른 한 축은 이륙의 기억이었다. A는 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을 사랑했다. 이윽고 2학년의 봄에 접어들던 A는 요즘 들어 1년 전 신입생이었던 때의 일들을 자주 생각했다. 이 가파른 캠퍼스를 오르내리는 길에 얼굴로 붙어닥치는 꽃샘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여뻤던 코트의 빛깔, 등교를 위해 지하철을 탈 때 출근하는 이들의 틈새에서 들었던 음악, 낯선 건물에서 줄지어 학식을 받던 순간의 소란스러움, 처음으로 산 레핑된 법서와 가느다란 플라스틱 자의 촉감 같은 것들을. 글자들이 매 장마다 찬합 속의 밥알처럼 빼곡히 들어찬 그 무거운 책들을 열심히 읽고 힘을 얻어서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로 나가야겠다고, 분명 갈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던 순간의 그 기억도. 그 모든 두근거리는 부유감들은 이제는 지나갔으나 여전히 선명했다. 그렇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A는 아직 예약된 여정의 절반도 날아보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과, 갈 길이 너무 멀고 그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절망이 마음속에 난기류를 일으켰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괜찮았다. 처음의 감각을 기억하는 한은, 이 기류를 헤치고 조금 더 날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 1. 입학 전 연습

12월 말부터 사법고시 1차 대비용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소위 ‘입학 전 연습’이라는 것을 다른 학생들처럼 시작했습니다. 1학기에는 물권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민법총칙과 채권법 부분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 2. 수강신청

같은 필수과목의 경우에도 교수님들 간 강의방식이나 시험스타일, 공부량, 변시적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인기 교수님과 비인기 교수님이 나누는 현상이 1학년 1학기 수강신청에서부터 두드러졌습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7기의 경우도 그 전 기수처럼 법대출신 혹은 사시2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아주 소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법출신 신입생들은 법대생들이 유리하다고 알려진 교수님 분반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학년 과정이 끝난 뒤 돌이켜보면, 수강신청의 성공이 반드시 학점의 성공을 보장한다거나, 수강신청의 실패가 학점의 실패로 반드시 이어지는 않는다는 점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교수님의 출제 성향이나 채점 방식 등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과 잘 맞을지 여부는 직접 그 교수님의 시험에 임한 후 채점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강신청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수강신청 성공여부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3. 입학 후 생활- 대인관계

고려대학교 로스쿨 1학년으로서 입학 후 놀라웠던 점 하나는 로스쿨 내부 행사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 간 교류할 기회가 무척 많다는 점입니다. 개강 첫 주 목요일은 ‘로스쿨의 밤’이라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갖는 날로, 1학기 와 2학기 모두 새벽 4,5시 경에 이르러서야 행사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밤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같은 조

1,2,3학년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조별로 친목을 다지는 날이 열리고, 그 후 이어지는 주말 혹은 가까운 주말에 신입생들은 조별로 MT를 가며 다시 한 번 친목을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학기 중순쯤에는 로스쿨 내부 체육대회인 ‘어울림픽’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3년 동안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를 만든다면 이는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때로는 짝짝한 공부일정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을 터놓고 싶을 때가 발생하는데, 같은 로스쿨 안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한 동료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그런 힘든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 스스로가 저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의 대인관계를 평가해보면, 로스쿨 내부에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조심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 때문에 여러 차례 열리는 술자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 어차피 3년을 함께 지내야 할 사람들이기에 굳이 서둘러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위 언급한 여러 활동들에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주변에는 저를 이해해주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 2학년 1학기를 무척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하고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 돌아간다면 제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보고 싶습니다.

### 4. 학회와 동아리 활동

입학을 전후로 7기 단체 카톡방에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학회와 동아리 모집 내지 홍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단체에 가입하는 학생들도 있고, 가입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 5. 건강관리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방법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적과 상관없이 ‘후회 없는’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건은 컨디션과 건강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환절기에 감기에 걸려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쉽게도 학교 근처에 병원이 많지 않아서 아플 때마다 택시를 타고 옆 동네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 6. 여름방학

여름방학에는 법조윤리 시험 대비를 제외하고는 가을학기에 다루는 민법3 물권법 내용을 반복적으로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7. 12월 법무부 사태

12월 초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발표 이후 사시존치 논란이 발생하며, 전국 로스쿨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 내지 단체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모든 로스쿨은 때로는 하나의 단결된 행동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각 학교별로 각자의 활동을 통해 이 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언론매체와 싸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하나 아쉬웠던 점은 내부적으로 학생들끼리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은 점입니다. 때로는 선배와 후배 사이, 때로는 평소 호형호제하던 친한 동기들끼리도 사태 자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고, 사안에 대한 대응책 등과 관련해서 입장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고, 때로는 특정인에 대한 루머나 비난이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시존치 논란은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저런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 발생한 감정의 골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바를 그저 묵묵히 해낼 뿐, 타인 혹은 타집단에 대한 성급한 언급이나 비난은 자제할 줄 아는 참을성과 성숙함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훈으로 얻었으며, 더 나은 방식으로 그리고 더 하나 된 모습으로 사태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로스쿨에서의 잊지 못할 3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천수이

### I. 들어가며

저는 동아대학교 로스쿨 5기 천수이라고 합니다. 로스쿨 생활수기를 부탁받고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로스쿨의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면에 더 가치와 비중을 두냐에 따라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더욱이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공부에만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저의 사례가 과연 도움이 될까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만큼 다양한 생활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 생활에 간단하게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I. 로스쿨 생활

#### 1. 학업

저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학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스쿨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어려운 공부를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시간에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 수업 내용을 전부 타이핑했고, 수업을 다 녹음한 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그 내용을 다시 듣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의 장점은 타이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과 녹음을 다시 들으며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점은 수업 내용을 다시 들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는데 고민 끝에 다른 공부를 하지 말고 수업 내용만이라도 충실히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3년간 이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 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다행히 잘 맞는 공부 방법이었고, 주말 등에는 수업시간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원 강의를 듣거나 기출문제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으로 보충하여 4.3만점에 4.0이라는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

었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학교공부와 변호사시험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시험만을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학년 때는 변호사시험만을 목표로 삼으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조금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목표로 삼아 내용을 정리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에도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점이 법학실력과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이 낮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실무수습이나 취업의 기회 등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점관리를 통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업까지 염두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각종 대회참가

저는 로스쿨에 다니면서 1학년 여름방학에는 한국인권재단에서 주최한 ‘국제인권모의 재판대회’에 참여하여 해외입양아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1학년 2학기에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최한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도 참여하여 부산 지역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학기에 ‘공익법률지원사업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치법정을 꾸려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에는 가인법정변론대회에도 민사법 부분에서 본선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법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정작 공부에 치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점점 무관심해지는 생활이 모순적이라는 생각에 공익, 인권과 관련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쪼개 많은 대회에 나갈 때마다 상을 받겠다는 욕심보다는 함께 대회에 나간 동기들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모전이나 재판대회 등이 많습니다.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로스쿨에 다니면서는 방학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방학 등을 이용해서 마음에 맞는 동기들과 1~2개 정도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익, 인권에 관심이 많아 그런 대회 위주로 많이 참가를 했지만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학교 로스쿨생들

과 생각을 공유하고 내 생각도 발표하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 수상까지도 한다면 법조인으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실무수습

저는 1학년 여름방학에는 부산가정법원에 실무수습을 나갔고, 1학년 겨울에는 미국으로 엑스턴십을 다녀왔습니다. 2학년 여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과 ‘검찰 기본 실무수습’을 2학년 겨울방학에는 ‘검찰 심화 실무수습’을 다녀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실무수습을 나간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실무수습을 통해 내가 과연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지를 현장에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법원, 검찰, 변호사직역 모두에서 실무수습을 거쳤는데 학교에서 민사재판실무나 검찰실무 과목을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법조 선배님들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 때 복수전공으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통해서 제가 복수전공한 분야를 법학과 접목시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3주간의 엑스턴십을 통해서서는 대사관, UN등 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분들과 만나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무수습의 다른 장점은 방학을 이용하여 다른 로스쿨 학생들과 친분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무수습 때 맺은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과 모임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니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도움을 받을 일도 많아지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실무수습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법조계에서 함께 일 할 좋은 동료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실무수습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4. 기타 교우관계

로스쿨 생활은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공부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명 가까이 되는 학교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스터디도 하고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공부만 하면서 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될 때에는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기 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나가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바다가 가까워 바람을 쐬고 오고 방학에는 부산에서 일본이 가까워 로스쿨 친구들과 3박4일로 온천 여행을 다녀오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습니다.

로스쿨 3학년이 되어서는 학년대표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공부 시간도 많이 부족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동기들이 자신들이 정리한 자료를 주는 등 도움을 많이 주어 제가 한 일 보다 더 큰 도움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들 공부하느라 예민해져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앞으로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크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이니 만큼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잘 지내고자 노력한다면 힘든 로스쿨 생활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III. 마치며

로스쿨 3년은 앞서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치열하게 공부해 로클릭이 되는 친구도 보았고, 방학을 이용해 다른 자격증 등을 따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분야에 제일 먼저 취업이 결정되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져 다들 공부하기에도 정말 힘들고 바쁜 시간이 되고 있지만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로스쿨 생활 중에서도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생각해서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전원에서의 1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김우리나라

이립이 되었다. 이학년이 되었다. 입학한지 어느새 1년이 지나 다시 1학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학회장까지 맡아 정신이 없다. 막바지 추위 속에 봄 꽃눈이 성큼 피어날 텐데, 벚꽃을 보아도 1년이 지났다는 소회를 느끼지 못 할 거라 쓴웃음이 절로 난다. 학교 앞 번화가 양 편에는 벚나무가 심겨 있는데 봄꽃이 모두 진 작년 5월께야야 그제 벚나무임을 알았으니, 올해의 꽃을 보아도 새삼스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전원에서의 지난 1년은 뭔가 신기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 속에 있을 때는 하염없이 힘들고 길던 시간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한 학기마냥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내왔는가, 어떻게 살아내 왔는가. 이렇게 적으니 마치 처연한 느낌마저 들지만 그냥 살아내 왔을 뿐이니, 그에 대해 한 번 반추해본다.

선배들, 동기들, 그리고 8기 후배들 중에 법전원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마음이 사뭇 달라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직의 꿈, 소위 빅 펄, 인권에 대한 헌신이나 외국으로의 진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등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혹은 계속되는 시험과 적당한 능력과 기회의 레일 위에서 자연스러이 법전원에 진학을 했을 텐데 그 마음들은 다들 안녕한지. 안타깝게도 내 마음은 안녕하지 않다.

법이 무언가, 왜 법조계로 나아갈 결심을 굳혔던가. 법은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법전원에 들어오려 했고, 내가 받길 기대했던 교육도 그를 위한 교육이었지 않은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라면 하게 되었지만 학기 초에는 학비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에 실망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적음에 슬퍼했고, 제도의 미래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표명하는 교수의 모습은 막막했다. 학부와 대학원의 단점을 합쳐 놓은 듯 성적에 연연하며 눈치를 보아야 하는 강의는 가르치는 사람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견문은 짧고 기대만 컸던 내가 꿈꿨던 학문의 전당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 그런 나를 붙잡아 준 건 함께 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자그마한 기쁨들과 미리 예측해 왔던 수많은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길을 꺾지 않겠다는 원래의 각오뿐이었다.

이 글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 이런 흔들림 없이 학업을 마치고 법조로 뛰어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나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그럴 수

없었고, 법조계에 대해서 알고 있던 문제들을 피부로 느낌에 따라 지금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상해 왔던 범주 안에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사실 별 것 아니라는 것, 케케묵은 병폐들을 없애기에는 한 사람의 힘은 너무 작다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그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걸 알고 있는데 막상 닥쳐보니 조금 힘들 뿐이다. 아, 힘들다고 칭얼거리 봤자, 사람들에게 잠시 기대 봤자, 정작 나대신 받을 내던져 줄 사람은 없다. 어디서든, 법전원에서든 마찬가지, 때로 당신의 발치가 위태롭고 흔들릴 때 어두운 아래는 흘깃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집중해야 할 곳은 인생의 밝은 면, 지난 1년의 나쁜 면들을 되짚어 봤으니 이번엔 좋은 면을 짚어볼 차례다.

내가 있는 법전원은 1학년 때 강제 반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거기서 나는 작년에 2반의 반장을 맡았었는데 40명 남짓이라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미묘한 수가 스테디를 기본구성단위로 삼아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다보니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빠르게 친해진다는 게 느껴졌다. 그런 중 반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반장의 위치선정도 달랐던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를 2반의 노예라고 말하곤 했다. 법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공식적인 위치에서 이런 단어를 쓰려니 부끄러운 기분도 들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누군가 귀찮은 일을 맡아야 하니, 그걸 내가 맡겠다. 그런 의미에서 반장을 맡은 거였고, 그렇게 행동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남 앞에 나서는 사람은 번거롭고 힘들지만 보람도 있다. 내가 얻은 보람은 사람들과 그만큼 친해진 일이다.

학회와 동아리 일도 좋은 경험이었다. 법적 문제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견서를 쓰는 일은 판에 박은 공부만 하던 머리에 활력소도 되고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있는 일이다. 올해 학회장을 맡으면서 학회 초창기만큼 법률상담을 받는 건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다. 또 운동 동아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나는 우리 스테디 사람들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지만 땀 흘리며 부대끼는 사람들 사이에는 또 남다른 친밀감이 있다. 모두들 학부 때보다 훨씬 치열하게 살아가다보니 이런 사람 사이의 모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던가. 학기 초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동기 원우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 와보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

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되었든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 말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진국인 사람들이 잔뜩이다. 특히 연말 연초의 일련의 사태들은 꽤나 흥미로웠다. 집단으로서는 엉망진창이었던 그를 통해서 멋진 개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까. 회사들이 짧은 대화나 면접으로는 발견해내지 못할 사람들.

한 예를 들자면 여기 와서 나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한 원우를 만났다. 물론 존경스러운 사람이 한 둘이겠냐 만은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사실 나는 귀찮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 성실한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독보적이다. 열람실에 앉아 있는 도중 고개를 들면 보이는 그의 한결같은 뒷모습은 경이로울 따름이다. 언동에도 격이 있는가 하면 수차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에 대한 칭찬을 듣기도 했다. 물론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므로 그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공부 외의 재주가 많은 사람들도 많다. 다들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갖추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은 부끄럽기만 한 와중에 각개 방면에서 반짝이기까지 하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음악, 춤, 영화와 같은 예술방면, 경제나 과학, 컴퓨터 등 학문의 방면, 공부 따위나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정도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하기까지 하다. 다행히 나는 별로 마음의 힘들 없이 무탈하게 2년차를 맞이했지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또는 생활에서 배어 나오는 선의. 3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선의이리라. 그러니까 요는 이런 거다. 이미 진학한 사람, 진학을 할 사람들 모두 알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제도도 사정도 잘 모르고 무작정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전원생들의 짜증이 이해되는 곳이다. 학교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다르지만 내가 있는 곳은 살아오며 나를 괜찮은 성적을 거뒀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나가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곳, 정신과 건강을 상해가며 노력하는 곳, 그 와중에 이렇게 쓸데없는 녀두리로 시간을 보내는 내가 부끄럽고 걱정되는 곳이다.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조차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인 법이다.

애시 당초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지에 발을 디밀었고, 여기서도 오지랖을 잔뜩 부리며 살고 있지만, 사람들 덕분에 내년 한해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다. 지면의 제한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원우들, 실무수습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1년을 보내고 반추해보니 드는 소감은 결국 감사로 귀결되는 것 같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한 톨씩의 근심은 덜어낼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보낸 1년은, 로스쿨에 나름대로 적응하려 애쓰던 상반기와, 이젠 적응했다고 착각했다가 큰 코 다친 하반기로 요약됩니다. 발버둥치다 보니 어느새 끝나버린 1년 동안 제가 로스쿨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노력, 힘들었음에도 소중하게 남은 기억들을 글로 나누려 합니다.

학교성적보다 변호사시험이 중요한 것임을 잘 모르는 1학년 때엔, 목숨보다 중요해 보이는 것이 성적입니다. 저도 성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수에 목을 매며 하루에 채워야 할 공부시간을 정해 스태프로 체크하며 공부했는데, 공부시간을 못 채우면 자책감이 들 때도 많아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조원들과 함께 매일 8시 55분까지 정독실에 출근하는 규칙을 정한 것은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됐고, 지각 안 한다고 아침밥을 입에 물고 조원들과 함께 뛰었던 기억도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물론 2학기에는 너무 지쳐서 출근규칙을 없앴지만요. 또한 저는 원래 공부하다 어려운 것에 대한 질문은 남에게 방해될까봐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2학기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원우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동기들에게 도움을 얻는 것이, 1년간의 공부법 중 제 한계를 가장 많이 뛰어넘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무조건 앞자리 앉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수업 내용을 타이핑하기도 했는데, 이 방법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빨리, 많이 하실 때는 도움이 되지만 저 또는 타인의 집중에 방해가 될 때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 질문을 하려면 저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이용해, 질문 자체를 공부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교수님이 주시는 피드백도 공부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사례 시험일 때는 제 실수가 이해될 때까지 교수님을 붙잡고 질문했고, 객관식 시험을 치른 뒤에도 교수님을 뵈고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를 기억에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교재를 선택할 때는, 1학년 1학기에는 기본을 충실히 다져야 한다는 생각에 두껍고 자세한 책을 정해 독파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2학기를 거치면서, 이해력에 한계가 있는데 공부해야 할 과목의 수와 분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선 한 권의 책을 이해하느라 지

나친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전체적인 이해, 빠른 이해가 필요한 과목(사실상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에서는 분량이 적은 교재를 택해 흐름을 익히고, 강의로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부와 수업의 연속으로 느껴지는 로스쿨생활이지만,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학교로서 공부 말고도 다른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로스쿨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격 발표 후 기독교법률가회(Christian Lawyers' Fellowship, 이하 'CLF') 모임에 갔던 것을 시작으로, CLF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CLF 모임에선 공부에 대한 정보, 진로 설계에 대한 조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겠다는 저의 꿈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CLF의 변호사님들께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의 연장선에서, 충북대학교 로스쿨 내의 선우회인 충북대 CLF 모임에도 가게 되었고 지금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동기들, 선배들을 충북대 CLF에서 찾았습니다. 자칫하면 공부만 하다 로스쿨에 온 목적도, 삶의 방향성도 잊어버릴 뻔했던 제게, CLF와 충북대 CLF는 휴식의 공간이자, 실질적으로도 여러 도움을 주는 모임으로 제 마음속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무수습도 미래의 저를 그리며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학교 주관으로 2015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무료법률상담 행사에 참여했는데, 지식이 누군가를 향한 실제적 도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 더욱 성실히 공부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법무법인 에셀(EZER, '도움'이라는 뜻)에서 실무수습을 했고, 에셀의 변호사님들에게서 제가 되고 싶은 법률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존중, 배려를 기본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이 끝난 후에도 의뢰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난민·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에서 의지할 곳 없는 이들과 함께 긴 싸움을 치러야 함에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삶을 롤모델로 삼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로스쿨생이 출전할 수 있던 많은 대회 중, 저는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이하 '가인대회')에 도전했습니다. 가인대회 예선 준비기간은 문제가 출제된 날을 포함해 약 6일간으로 매우 짧은데, 시험 때보다 더 필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부는 완전히 손에서 놓고 팀원들과 낮밤을 함께하며 준비한 결과 예선을 통과했지만, 사법시험 준차 발표 이후 일정들이 엉키면서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를 만에 본선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

었습니다. 간신히 서면은 제출했지만, 팀원 모두 지친데다 여러 조건상 제대로 본선변론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논을 거쳐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가인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경험 자체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우승을 목표로 하다보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쉬웠던 대회준비기간 총 8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듯, 사회의 축소판인 로스쿨에서도 원우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서로를 경쟁상대로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미래에 서로 힘이 될 존재들로 여겨 상대방을 아껴준다면, 삭막한 로스쿨 생활도 빛이 나게 될 수 있음을 지난 한 해 동안 확인했습니다.

1년의 로스쿨 생활에 대해 긴 글을 썼지만, 저는 아직 로스쿨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적응하려 애쓰다 어느 틈에 1학년이 끝나버렸던 것처럼, 살아남으려 고군분투하다 저도 모르는 사이 변호사시험 시험장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학하기 전과 조금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던 1년의 생활이 저를 예비법률가로 성장시켰음을 발견했습니다. 남은 2년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시행착오 속에서도 지식과 인격 모든 면에서 제가 꿈꾸는 법률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이들과 언젠가 당당히 변호사 배지를 달고 서면으로, 혹은 법정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로스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최장호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최장호라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 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동안 참 많은 일들과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빌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입학 전의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다른 법학과 동문들과 달리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공익 달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현재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법조인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다양하였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였고, 201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 3.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생활

#### (1) 학업

3월 개강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입학 전에 별도의 선행학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헌법, 민법, 형법을 공책에 한자로 3번씩 작성을 하였습니다. 법전과 익숙해지고, 각 법의 큰 틀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별 것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커리큘럼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3년간

의 공부 계획에 대한 큰 틀을 짜고 개강을 맞이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과 법학과에서의 수업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교수님들과의 거리입니다. 학부 때에 비하면 교수님 한 분당 학생 수가 적었고, 이는 수업에 있어서의 집중도로 나타났습니다. 수업시간에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들이 오갈 수 있었고, 학생들 수준에 맞춘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교육 관련 수업들이 많습니다. 1학년 때 소장과 답변서를 처음 작성하였을 때의 당혹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나름 법학과를 나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책속의 법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은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작성한 소장 등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직접 첨삭과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열정입니다. 저는 동기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너희들을 알게 되서 정말 다행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출신의 동기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국악을 전공한 동기부터 말레이시아어를 전공한 동기까지, 건설 회사를 다니다 온 동기부터 은행을 다니다 온 동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동기들을 바라보며 항상 새로움을 느꼈고, 굉장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똑똑하지 않은 친구 없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행정고시를 공부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제게 동기들을 항상 좋은 거울이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학부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열정적인 동기들의 모습들은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시게 될 여러분들께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교우관계

위와 같이 위낙에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보니 경쟁이 치열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주변인들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한다면 괜찮겠냐라는 말을 듣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입학을 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 느낀 것은 치열한 경쟁이 상대방을 꺾기 위한 경쟁이 아닌 서로를 자극하기 위한 선의

의 경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스터디도 함께 진행하고, 운동도 같이하며 서로 도와가며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간의 예의만 갖추신다면 교우관계로 인한 갈등이나 불편을 겪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것입니다.

## (3) 동아리, 학회 그리고 원우회 활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단순히 변호사시험만을 목표로 고시학원처럼 공부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동아리와 학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탁구부와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법학관 내의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한 학기에 한번 복식/단식 대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선배님들과 교류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제게 있어서 동아리 활동은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신다면 3년간의 생활을 위하여 운동을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민사판례연구회라는 학회의 학회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강구옥 교수님께서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희를 지도해주셨습니다. 매주 판례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는 그동안 수험적으로만 접해왔던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판적 시각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2학기 때 마음이 맞는 원우들과 고용노동법학회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던 분야였던 노동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공유하고자 함이 그 목표였습니다. 원장님이시기도 한 이정 교수님의 지원 하에 현재에 계신 노동법 관련 변호사님들과 노무사님들을 만나고 특강을 듣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노동법 사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학년 1학기 때 학년대표를, 2학기 때는 부회장을, 그리고 현재는 원우회장을 하며 1년 반제 원우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우회 활동은 어떻게 하면 원우들에게 좀 더 좋은 학업환경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원우회 활동을 통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며 소통할 수 있었고, 항상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원우회장님들과 교류를 하며 대인관계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 (4) 공모전 등 대외활동



저는 아직 실무수습 등 인턴의 기회는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들 중에는 법원, 법제처, 언론중재위원회부터 로펌까지 사회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을 다녀온 동기들은, 장래 자신의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책만 보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오신다면 정말 많은 기회가 제공되니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턴을 가지 않고 방학 때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동천에서 주최하는 제5회 동천 공익인권프로그램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입상은 하지 못 하였지만, 제게는 잊지 못 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미래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사회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에 오시게 되면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가해보시기 바랍니다.

#### 4. 마치며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제게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은 건문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제 2학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매일 새로운 공부와 경험들로 설레는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장래에는 법조계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강희찬

### I.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연세대 로스쿨 5기 강희찬입니다. 이 글은 변호사시험 합격기는 절대 아니고요, 시험 합격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주제 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후배님들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후배님들께서 앞으로 공부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공부방법이 있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특히 저는 사법시험 2차 경험자라는 점에서 제가 제시하는 공부방향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의 1년을 설계하시는 데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II. 기간별 학습전략

#### 1. 2학년 겨울방학

##### 1) 민법 기본서 정리

계절학기 수강 후 검찰심화 실무수습에 나가기 전까지의 기간(약 2주)동안 민법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민법은 가장 양이 많고 어려우며, 변호사시험 내 차지하는 점수비중이 가장 높고,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3-1학기에 민사소송(재판)실무, 민법통합사례연구, 민법 강화프로그램 등 민사법을 위주로 수강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기본서는 윤동환 강사의 '민법의 맥'으로 정하였고, 매일 일정한 공부량을 정해서 책을 읽어나가며 정리하였습니다.

##### 2) 2월 졸업시험 준비

검찰심화 실무수습을 마치고 나니 방학이 3주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공부를 하며 방학을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치러지는 2월 졸업시험을 준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남은 방학기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1주 정도 동안 민법을 훑고 나서,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했던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을 보았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은 지난 2-2학기에 학교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별도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 2. 3-1학기 및 여름방학

### 1) 강화 프로그램의 시작

저희 연세대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금/토를 시작으로, 매주 금/토요일마다 민법 4주, 민소 2주, 상법 2주가 진행되었고, 방학시작과 함께 헌법 2주, 행정법 2주, 형법 2주, 형사소송법 2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화 프로그램은 담당 교수님께서 만드신 사례형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강평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2)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 및 단권화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례형을 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제가 조금 더 주력을 두었던 것은, 강화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 정리 + 객관식 문제 풀이 및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 더욱 객관식 기출문제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틀리거나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된 지문을 기본서에 녹여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즉, 기본서에 정리된 판례 등 지문을 찾아 체크하거나 없는 지문은 추가로 기입하는 등으로, 변호사시험 막바지에 빠르게 기본서를 읽어나갈 수 있게끔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집은 과목별로 선별하여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선택형 기출지문의 대부분은 판례 및 조문이라는 점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서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아우라(Aura)에서 나오는 전집으로 보았습니다.

## 3. 3-2학기

### 1) 기록형 시험 및 선택법 대비

학교에서 민사법응용, 형사법응용, 공법쟁송실무 과목을 수강하면서 민사법/형사법/공법 기록형 대비를 하였습니다.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환경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환경법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 2) 기본서 3회독

학교수업과 별개로 각 과목별 기본서를 읽어나갔습니다. 7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을 7일/4일/3일 씩 정하여 끝내자는 계획을 세우고 각 과목별 분량에 따라 조금씩 목표량을 조정해가면서 책을 회독하였습니다.

## 4. 6, 8, 10월 모의시험의 활용

위 모의시험은 변호사시험 실전을 대비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수업일정이나 강화프로그램 일정과 별개로 위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 시험의 경우 3-1학기 동안 민사과목을 위주로 다루어 상대적으로 공법과 형사법 공부가 미흡했으며, 8월 시험의 경우 여름방학동안 공법+형사법 위주로 공부가 이루어져 민사법 공부가 취약하였습니다. 또한 6, 8월 시험의 경우에는 기록형 시험의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완성적인 모의시험 응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월 시험의 경우, 3-1학기 기말시험이 끝난 직후여서 각 과목시험 전날에 기록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로 준비하였고, 8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전 3일 정도 민사법(특히 민법) 기본서를 보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III. 변호사시험 대비 공부전략

### 1. 기본서 중심의 반복학습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은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 더욱 난이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양이 버겁다 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하게 정리되어있는 기본서를 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막막하고 무모해보일지라도, 미리 부지런히 '단권화 작업'을 하게 되면 시험 막바지에 가서는 빠르게 정리하여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 2. 판례 중심 학습

체감상, 선택형에 있어서 판례의 비중은 70% 이상이고, 조문 등 나머지는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형 및 기록형이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판례의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판례 및 최신판례 위주로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요 법리가 쟁점이 되는 판례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까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치 최신판례는 모든 과목에서 마지막까지 필수적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주요판례가 출제에 많이 반영되고, 기존부터 봐왔던 리딩 판례와 달리 그 내용이나 법리가 생소할 수 있어서 막판까지 확실하게 익히고 정리해두지 않으면 분명 실전에서 헛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 3. 수업과 별개의 공부계획

3학년 과정은 지난 2년과는 다르게, 해당 학기의 중간/기말시험 준비와 더불어 독립적으로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공부계획의 방향을 정하기가 혼란스럽다면, ①3-1학기 및 여름방학에는 객관식 기출지문 정리 및 단권화를, ②3-2학기에는 학기가 끝날 시점(변호사시험이 약 1달 정도 남은 시점)까지는 모든 기본서 3회독 및 최신판례 3개년 정리를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오대하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오대하입니다.

먼저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학부에서 회사법, 민법총칙, 행정법과목을 수강하면서 법학 과목 공부에 흥미를 느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하고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할 때는 그때 그 흥미가 어디로 숨었는지 한 학기 한 학기 공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글을 쓰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제 수험생활은 급하게 그때그때 위기를 막는 날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졸업시험 당일에서야 기출문제를 보고 '본 시험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자'하며 다짐하고 또 해놓고 본 시험에서도 똑같이 한 부끄러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있는 그대로의 시험 준비 과정, 시행착오와 느낀 점을 보고 혹시나 한 분의 후배님이라도 수험생활의 방향을 잡고 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 기본서의 결정과 공부

기본서는 1학년과 2학년 때 수업을 들으며 책의 부분을 보고 몇 번을 바꾼 경험으로 과목당 한권씩 정하였습니다. 대세에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대세인 책이더라도 저 자신이 읽어나가기 힘든 책은 빼고 남들이 안보는 책이더라도 마음 편하게 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은 골랐습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교수님 저서로 공부하되 학원 강사의 수험서 중에서도 공부하기 좋은 책이 있으면 선택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최대한 마음 편하게, 괴롭지 않게 읽어 내려가며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골랐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어느 기본서이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내용이 있으며, 답안지에 쓸 쟁점의 내용은 나중에 기출문제와 핵지총, 핸드북으로 최종정리를 하면서 다 머릿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기 좋으면 어느 책이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지원림 교수님 민법강의, 형법 신호진저 형법요론, 헌법 정희철저 기본강의 헌법, 민사소송법 이시윤 교수님 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은모 교수님 형사소송법, 행정법 홍정선 교수님 행정법특강, 상법 김혁봉저 상법강의 로 결정하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법에서의 지원림 교수님의 책과 민사소송법 이시운 교수님의 책, 행정법 홍정선 교수님의 책은 그 과목에서의 강사의 책이 오히려 읽고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교수님의 책이 법리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고 기본을 다지기에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림 저 민법강의와 신호진저 형법요론은 많이 보는 책이지만 판례의 깨알 같은 글씨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수업의 공부에 부분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 기본서 공부에 있어서는 읽기 힘든 깨알글씨로 적힌 세부적인 판례는 빼고 큰 글씨의 내용 설명만 이해하며 나아갔습니다. 세부 판례도 대강이라도 읽고 싶었지만, 한 달 동안 매일 열심히 공부해도 기본서 한권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부 판례를 꼼꼼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본격적인 수험준비로 기본서를 읽어가는 단계에서 배로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참으며 굳이 세부판례를 읽거나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서 정리 후 최종정리로 보게 될 핵지총, 핸드북과 기출문제에 답안을 쓰고 정답을 고르기 충분한 쟁점과 판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서 공부 후에 핵심정리 과정에서 1회부터 최근까지 출제된 모든 쟁점과 지문으로 세부내용을 공부해 변호사시험 답안에 쓸 쟁점과 판례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 3학년 생활의 계획과 실제 공부과정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실무수습을 마친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 실무과목과 소송법 수업을 따라가고 학점을 채우기도 빠듯했습니다.

3학년 때 본 시험까지 기본서와 기출 외에 따로 문제집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의 생각은, 물론 기본서를 1학기 중에 마무리하고 여러 문제집도 보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7과목과 선택과목의 기본서만 한번 정독하니 10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실전 연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6월의 1차, 8월의 2차 모의시험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기본서의 공부로는 실제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선택형의 지문은 모두 답인 듯 비슷비슷하였고 사례형의 논점은 거의 찾을 수 없었으며 기록형의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상 3차 모의시험이 졸업시험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실전연습이었습니다. 초조하고 이대로 1년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일단 졸업은 하자는 마음으

로 10월이 돼서야 핵지총을 보았습니다. 사례형의 기출문제는 10월 말인 3차 모의시험 당일에서야 처음 펴서 보았습니다. 기록형의 QT도 10월에 본격적으로 보았습니다. 기록형에 있어서는 졸업시험과 4회 변호사시험에서 QT 한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10월까지 세부 내용은 몰랐지만, 기본서를 한번이나 본 상태이기 때문인지, 졸업시험의 마지막 기회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인지, 빠르게 기출문제와 핵지총, QT로 세부 쟁점과 지문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10월까지 기본서를 읽으며 이해하는 과정은 준비단계 이었으며(이 단계만으로는 답안을 써내기 힘들다) 이후 10월부터 기출문제와 핵지총으로 쟁점과 지문을 정리하는 과정(준비단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수월합니다)이 실제 답안지에 쓰는 직접적 내용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두 단계를 모두 거치되 6개월 또는 1년과 같이 남아있는 시간,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을 보아 범위와 분량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0월에 기출문제와 핵지총, QT로 최종 정리를 하고 졸업시험을 보고나서 전반적으로는 하던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선택형과 기록형에 비해 배점이 두 배 많은 사례형의 공부였습니다. 기출 쟁점에 더해 전 범위의 중요 쟁점을 답안지에 담는 내용의 분량과 수준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핸드북 형식으로 된 책을 과목마다 한권씩 구해서 보았습니다. 핸드북 분량이라 며칠이면 정리하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한과목당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분량이 두꺼운 책의 핵심 논점과 근거를 요약한 내용이며, 답안지에 실제 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외울 정도로 집중해서 보면 하루에 100페이지도 읽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12월 중순이 되어야 7과목의 핸드북을 한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월에 보고나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핵지총도 다시 1회독 하고 싶고 3차 모의시험이 임박해서야 날림으로 본 QT도 다시 한 번 정독하고 싶었지만, 시험까지 3주 남은 시점에서 무리였습니다. 결국 핵지총의 잘 몰라서 표시한 부분만 일부분 보고 남은 부분과 QT는 시험 전날과 당일 쉬는 시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 11월부터의 공부

시험 한 두 달 전부터는 기본서의 공부보다는 핵심지문총정리와 키워드 정리집을 반복해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반복할만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반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간제약 때문에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문과 쟁점 하나 하나를 보면서 이해했으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과감하게 표시를 하고 다음 반복 할 때는 모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문과 쟁점을 아는지 표시하기 위해 의식하며 보면서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한번보고 두 번째의 반을 제대로 못하고 시험 전날과 당일 쉬는 시간으로 미루다 결국 못 보았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정리시간을 길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긴 시간을 정하면 기본서를 볼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아 늘어지게 되어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험 전날과 당일의 공부

변호사시험에서도 시험 전날과 당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잘 정리해 놓았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흐릿하게 생각이 안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험 전날에는 일찍 자고 시험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 바로 옆 도서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6시 7시에는 모든 체력을 소진하고 긴장이 풀려 밥을 먹을 힘도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자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시간을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최대한 실제 시험에 가까운 기출문제를 보았습니다. 몇 회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읽어 내려가면 짧은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쟁점을 볼 수 있어서 시험 전날과 당일 불 교재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형의 기출문제를 보고 기록형은 기출문제를 정리한 QT를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험당일 아침과 점심시간, 쉬는 시간은 준비시간, 정리시간, 식사시간을 빼면 각각 한 시간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례형과 QT에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부터 시간이 되는 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눈에 바르는데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바로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은 쟁점이 유형을 달리해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형의 지문이나 문제로 출제된 쟁점이 사례형으로 나오고 사례형의 기출쟁점이 시험장 들어가 보니 선택형의 지문으로 나오는 것을 시험 보는 주 내내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에는 문제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확실하지 않은 쟁점이 있어 헤매면 더 큰 시간이 하염없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례형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며 생각하면서 쟁점을 그물치듯이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낸 쟁점과 아니라 인

물관계, 사건특징 그 어떤 것이라도 그때그때 문제지 어디든지 표시하였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읽고 생각한 후에는 문제 밑에 답안의 목차를 써서 써놓았습니다. 목차는 큰 목차와 중간목차까지만 잡고 소목차까지는 잡지 못했습니다. 목차 잡는 시간과 이를 답안지에 쓸 시간을 고려하면 기출 해설처럼 소목차까지 잡아 쓰기 현실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잡은 후에는 페이지와 남은 시간을 보고 페이지별로 시간을 배해 쓰면 무난할 것입니다.

### 선택과목의 결정

선택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결정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2학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2학년 1학기에 환경법, 국제거래법 수업을 듣고 3학년 1학기에 환경구제법 수업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 과목 모두 아닌, 3학년 1학기 중간시험을 보고 나서야 조세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졸업시험과 변호사시험까지 조세법을 응시하였습니다. 제가 세 개의 수업을 들으면서 1년 넘는 고민 끝에 환경법과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지 않고 조세법으로 정해서 밀고 나간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 자신에게 가장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법과 국제거래법 수업을 들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힘들어 고민을 계속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 공부스타일과 두 과목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환경법은 민법 행정법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은 조금은 다른 성격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면 그 나름대로 새로운 이해를 세울 수 있었지만 비슷한 듯 다른 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국제거래법은 몇 개 안 되는 조항의 적용과 예외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느 한 과목에서 한권의 책을 정해 밀고나가는 스타일인데 두 과목 모두 그 한권을 정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무엇인지 강약을 구별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본법이라면 안 되면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해야 했지만, 맞지 않으면 다른 과목으로 갈 수 있는 선택과목이기에 3학년 1학기 중간시험을 본 후 선택과목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 전공과도 연결되고 쓰이는 용어가 익숙한 조세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세법의 교과서가 공부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임승순 변호사님의 조세법이라는 책을 실제로 몇 부분 읽어보고 조세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부는 책의 단원 단원 읽어 내려가며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조세법은 다른 과목과 같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직접적으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총론

중에서도 조세법의 기본원리에서 대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사례를 주고 ‘공평과세의 원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 몇 조에 의거해 사안의 과세가 타당한지, 불복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정도로 물어보았습니다. 소득세법이 문제에 등장하지만 내용은 조세법의 기본 원리이며 특히 법의 조문까지 제시해 주어서 조문도 공부할 필요 없이 기본원리만 한번 읽으면 쓸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각론의 소득세 계산 같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글씨쓰기 연습

3학년이 되어 전 과목 모의시험에서 조금이나마 답안을 쓰며 깨달은 것이 글씨의 중요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글씨의 모양이 아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입니다. 모의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 답안작성에서 두 시간에 여덟 페이지, 특히 민사법의 답안작성은 언제 보아도 버거운 정도의 분량과 시간제한이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손목 통증이 심해지는 것에 더해 애써 찾은 논점과 답안구성을 다 쓰지 못할지도 모르는 버거움이 더해져 초조한 시간이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한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빨리빨리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2학기부터, 특히 3차 모의시험을 보고난 후인 11월부터는 듣고 있던 수업의 모든 시간동안 교수님의 말씀을 모두 손으로 받아 적으려 노력하면서 글씨연습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로 연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짧은 연습이라도 한다면 모의시험과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한결 수월하게 답안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업의 중요성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지는 못했지만 변호사시험에서 수업이 중요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장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고르지 못하고 쟁점을 찾지 못해서 답안을 더 쓰지 못해 위기에 빠져있을 때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불현 듯 생각나 그대로 답안을 고르고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수업을 더 열심히 잘 듣고 배웠다면 시험장에서 더 많은 순간에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후배님들 중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얼마 안남은 시간동안 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장에서 마지막 선택과목 시험지를 제출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저 또한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된 글씨연습과 변호사시험장에서 직접 답안을 쓴 내용은 시험 불과 두, 세 달 전부터 모두 연습하고 머릿속에 넣은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잘 맞는 공부방법과 교재가 있다면 많은 사람의 선택과 다소 다르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과목별로 법의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고 세부 쟁점을 시험 형식에 맞게 숙지한다면 어떻게 가든 길은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과 나 자신을 믿고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험장에서 1주일을 보내며 뵈었던 후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추운 겨울날에 매일 변호사시험장에서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주시며 응원해주셔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일 춥고 힘든 1주일을 든든하게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려서 수기의 마지막을 빌어 전해드립니다. 마음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후배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발 행 일 2016년 5월

발 행 인 오수근 이사장

편 집 / 진 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 행 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 책자에 수록된 수기는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도움을 받아 취합했습니다.